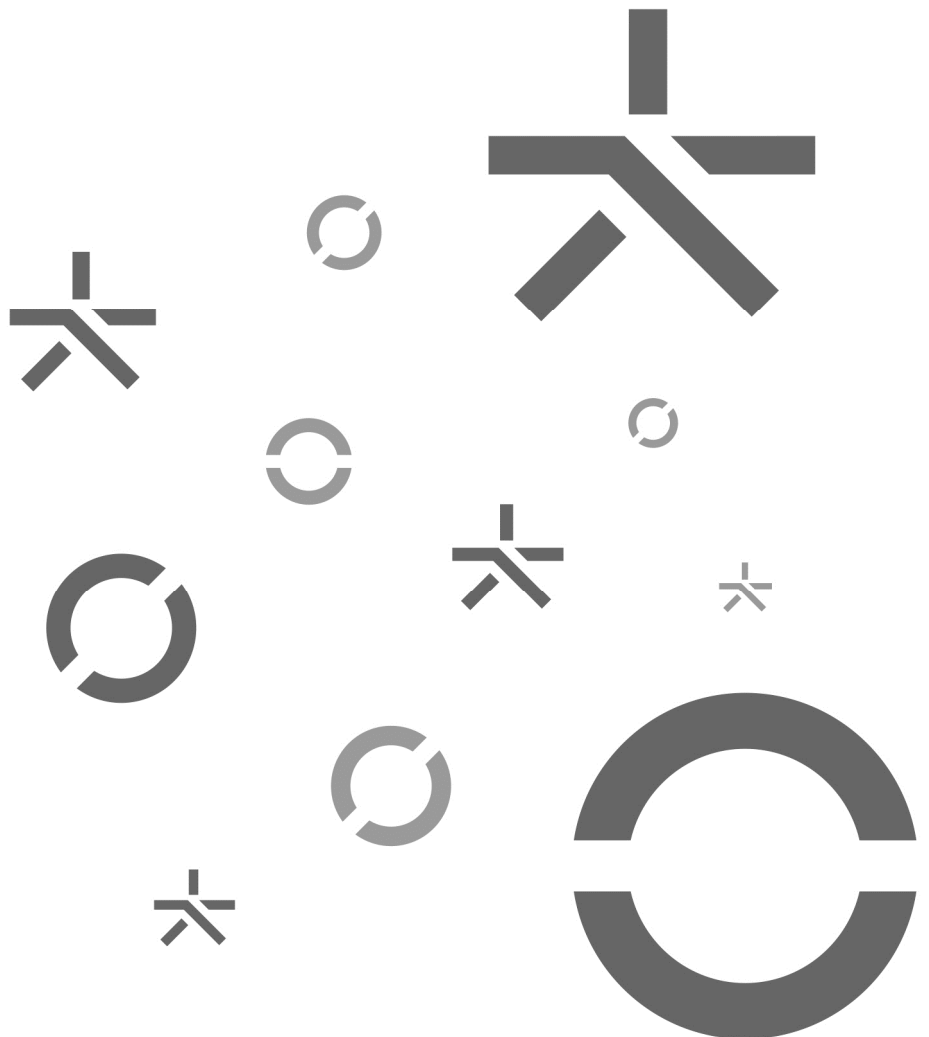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민경선



#### 연구책임

민경선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참여

황용재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 배경과 목적

- 인천시의 외국인주민 수는 2008년 4.9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약 165% 증가하였고, 2019년 11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함
- 통상적으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체인구의 5% 이상일 때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인천시 민선7기의 시정운영계획은 ‘누구나, 소외 없이 생활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삶을 영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내 외국인주민을 지역의 주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는 삶을 인천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에 제정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조직한 후 2021년에는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문화시설의 조성,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와 다문화사회 정착 촉진에 이바지할 예정임
-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한국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도 다문화 정도와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가 다문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할 문화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2.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 1)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 과거에는 교과서에서도 단일민족의 정체성과 순수혈통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세계화 진전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만연하게 됨
-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인 노동력 보완 차원에서 받아들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차등을 두는 것, 결혼이주여성 등에 동화정책의 차원에서 흡수통합만을 강조했던 것은 도리어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됨

### 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 문제

-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행하게 되었는데, 결혼이주여성 이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 등 반인권적이고 불평등한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며, 이들은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참여해 권리를 인정받기란 어려운 실정임
- 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언어로 인한 학습 부진 및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학교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3)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외국인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내·외국인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것은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는 타문화에 대한 포용의 원리에 입각한 문화적 성숙이 필수적이며, 이를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3. 다문화 관련 정책 동향

#### 1)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관련 주요 사업

-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한 법정계획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따르는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있음
-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협력하는 사업들은 ‘교육’, ‘문화사업(문화다양성 공모사업)’, ‘문화행사·홍보’, ‘아카이브·지표’ 위주로 추진되어,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 부문의 역할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함
-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책은 기존의 문화다양성,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을 강화·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기반 확보, 공동체의 사회통합, 외국인·이주민의 인권 향상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개발·추진할 필요 있음

[요약 그림 1] 다문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요약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내 문체부 소관 사업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내 문체부 소관 사업
		동일·유사사업	
교육	·문화다양성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공무원·교원 대상 다문화·문화다양성 교육	·한국어 교육 강화
문화사업/ 문화다양성 공모		·무지개다리 사업 ·이주민 자조모임 지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다문화 체험시설 조성 및 전시
행사/홍보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정규 편성	·언론 등과 함께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
아카이브/지표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운영		

#### 2) 인천시의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 여건

- 인천시의 다문화 관련 제도로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5746호)가 있음

-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7406호)은 2014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 법정계획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나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았음
- 이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재단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원해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을 운영해 왔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이 끊기거나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인천시가 선주민과 이주민이 교류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계획을 마련하여 인천시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요약 그림 2] 다문화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구분		외국인	다문화가족	문화다양성
국가	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담당 행정기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제도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없음*
	담당 부서	가족다문화과		문화예술과
		외국인생활지원팀	다문화가족팀	문화정책팀
	관련 시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주: \* 2020년 10월 현재 인천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인천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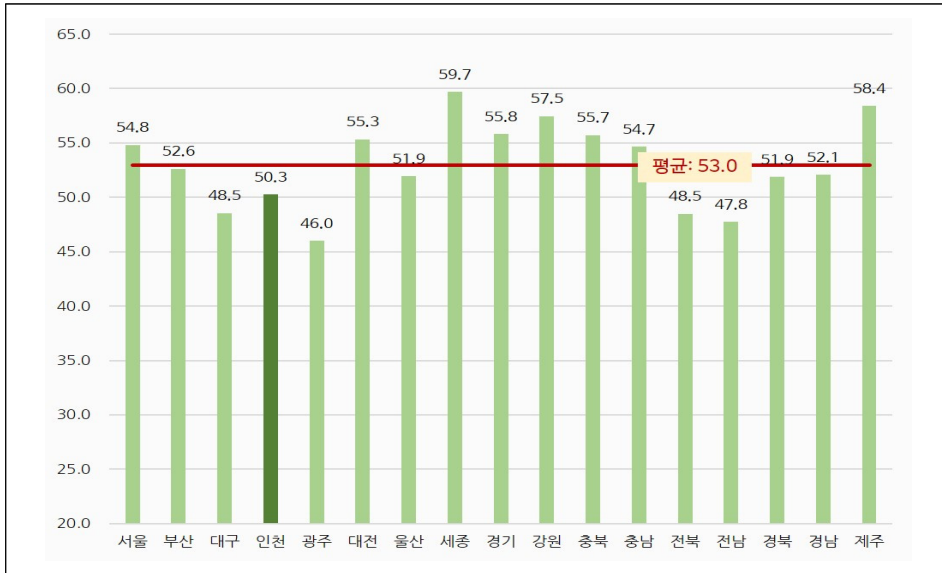
## 4. 인천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 1)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 인천시의 다문화수용성은 50.3점으로 광주(46.0), 전남(47.8), 대구·전북(48.5)에 이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다문화수용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요약 그림 3] 시·도별 다문화수용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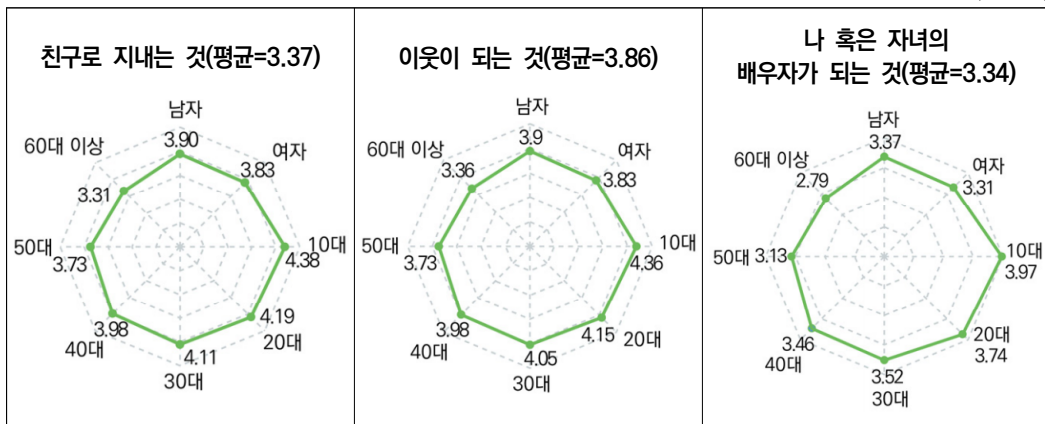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분석

## 2) 인천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인천시민은 외국인이 나의 가족(나 혹은 자녀의 배우자)이 되는 것(3.34점), 친구가 되는 것(3.37점), 이웃이 되는 것(3.86점) 순으로 동의 수준이 낮음
- 이는 지역사회에 외국인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와 ‘외국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하며,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요약 그림 4]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점)



자료: 2019 인천의 사회지표, p.266

## 5.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 1) 도출 과정

[요약 그림 5]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도출 과정

문화다양성·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과정	주요 시사점
<b>[문헌고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li> <li>•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계 분석</li> <li>•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검토</li> <li>• 다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과의 공존 중요</li> <li>• 현재의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 부문이 담당하는 역할을 검토하고, 다문화감수성 향상 등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의 역할 강조 필요</li> <li>• 다문화 정책에 문화다양성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역할 확대 필요</li> <li>•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추진 필요</li> <li>• 외국인의 인권 존중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li> </ul>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 및 사업 동향	
과정	주요 시사점
<b>[주요 정책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동향 검토</li> </ul> <b>[사례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정책 강화 기반 확보 사례 검토</li> <li>• 외국인 인권 향상,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 개선을 위한 문화사업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은 부수적 역할에 머무름</li> <li>•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가 담당할 역할을 발굴, 정립해야 함</li> <li>•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체부의 기존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존중,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li> <li>•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문화사업 기획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li> </ul>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	
과정	주요 시사점
<b>[외국인주민·다문화가구 현황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활용</li> </ul> <b>[인천시민 다문화수용성 실태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활용</li> </ul> <b>[인천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사회조사' 활용</li> </ul> <b>[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제도와 담당 부서/사업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감은 상당히 낮고, 사회적 거리는 큼</li> <li>• 문체부의 건고하지 않은 다문화 사업추진 기반은 지역의 문화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천시 문화정책에서 다문화 유관 사업추진은 미진</li> <li>• 문체부의 무지개다리 공모사업만이 민간 영역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li> <li>•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li> </ul>

↓ 분석 결과 종합·자문(2020.11.18.~2020.11.24.)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도출
--------------------------



## 2) 문화정책의 과제

-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 문화정책의 추진기반과 역할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 ‘다문화 감수성 확산’,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로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정책을 제언함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수립’, ‘인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치’를 제안하였음
-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를 위한 제안사항으로 ‘외국인 인권증진·일상적 차별을 주제로 한 문화사업 기획 지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교류사업 지원’을 제시함
- ‘다문화 감수성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하고,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문화다양성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요약 표 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시 문화정책의 과제 제언

구분	내용
목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 문화정책의 추진기반과 역할 강화
과제 제언	<b>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b>
	①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②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수립
	③ 인천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치
	<b>2)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b>
	① 외국인 인권증진·일상적 차별 개선을 주제로 한 문화사업 기획 지원
	②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교류사업 지원
	<b>3) 다문화 감수성 확산</b>
	①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②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b>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b>
	① 인천시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②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③ 문화다양성 연구 활성화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6

**2 다문화사회 관련 문헌고찰**

1. 주요 개념 .....	11
2.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	14
3.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7
4. 소결 .....	19

**3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사업 동향**

1. 주요 부처별 정책 동향 .....	23
2.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사업 사례 .....	40
3. 소결 .....	47

**4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과 진단**

1. 인천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 현황 .....	51
2.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실태 .....	53
3. 인천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현황 .....	60
4. 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 .....	62
5. 진단 .....	80

**5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1. 도출 과정 .....	85
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및 정책제언 .....	88
3. 결론 .....	101

참고문헌 .....	103
------------	-----

부록 .....	109
----------	-----

[표 2-1] 선행연구 요약 .....	18
[표 3-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제 .....	25
[표 3-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제 .....	28
[표 3-3]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 수행기관 .....	33
[표 3-4] 지역 주관기관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프로그램 .....	34
[표 3-5]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지역별 수료 인원 .....	36
[표 3-6] 2020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현황 .....	37
[표 3-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	40
[표 3-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 .....	42
[표 4-1]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응답자 특성 .....	56
[표 4-2] 인천시민의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	59
[표 4-3]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59
[표 4-4]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문화정책 관련 주요 내용 .....	63
[표 4-5] 2020년 가족다문화과 내 다문화가족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의 주요사업 .....	64
[표 4-6] 2020년 문화예술과 내 문화정책팀의 주요 사업 .....	66
[표 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제도 .....	67
[표 4-8]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67
[표 4-9]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	68
[표 4-10]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제도 .....	69
[표 4-11]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현황 .....	69
[표 4-12]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	70
[표 4-13] 인천문화재단 개요 .....	70
[표 4-14] 2020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선정 내역 .....	72
[표 4-15] 2019~2020년 인천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 .....	73
[표 4-16] 기초문화재단 개요 .....	73
[표 4-17] 기초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	76
[표 4-18] 인천영상위원회 개요 .....	77
[표 4-19] 2020년 별별 씨네마 상영작 .....	78
[표 4-20] 인천영상위원회 문화다양성 사업 .....	79
[표 5-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시 문화정책의 과제 제안 .....	88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	7
[그림 2-1] 문화다양성·다문화정책의 관심 대상과 지향 .....	13
[그림 3-1]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	24
[그림 3-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	27
[그림 3-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의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 .....	31
[그림 3-4] 다문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요약 .....	38
[그림 4-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8) .....	51
[그림 4-2]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2018) .....	52
[그림 4-3] 다문화가구 수(2018) .....	53
[그림 4-4] 다문화수용성 구성 개념 .....	55
[그림 4-5] 시·도별 다문화수용성 .....	57
[그림 4-6]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구성하는 각 차원에 대한 분석 .....	57
[그림 4-7]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하위요소에 대한 분석 .....	58
[그림 4-8]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감 인식 .....	60
[그림 4-9]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61
[그림 4-10] 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 조사 분야 .....	62
[그림 5-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도출 과정 .....	86
[그림 5-2] 중앙과 인천시의 다문화·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식 비교 .....	90
[그림 5-3] 문화다양성 위원회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정례회의 제안 .....	99



## 연구개요







#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1)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지원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인천 외국인주민의 수는 2008년 4.9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약 165% 증가하였고(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9년 11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함
- 통상적으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체인구의 5% 이상이 될 때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면(김태원, 2012), 양적인 측면에서 인천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인천시 민선7기의 시정 운영계획은 ‘누구나, 소외 없이 생활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삶을 영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내 외국인주민을 지역의 주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인천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해외 컨설팅 업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11개 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타남(매일경제, 2016)<sup>1)</sup>
- 더욱이 인천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 대비 여전히 외국인 관련 복지, 생활편의, 지역 정착과 관련한 정책사업은 부족하여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실정임(세계일보, 2019)<sup>2)</sup>

1) 박가현(2016.3.2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 삶의 질? ‘최악’...11개 국가 중 꼴찌, 매일경제

2) 강승훈(2019.9.26.). 인천 외국인주민 10만명 시대... 체계적 지원 ‘인천시 이민청’ 설치해야, 세계일보

- 즉, 외국인주민의 지속 증가, 국제문화교류 확대는 인천시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있으나,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민원과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낮은 삶의 질에 대한 보고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조용한 정책적 대응의 강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2)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 부문의 역할 확대 미흡

- 정부는 국내에 증가하는 외국인을 법적 지위에 맞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법무부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함
- 또한, 한국 총인구 중 이주민 비율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고, 이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 옴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한국의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틀로써 외국인의 인권 옹호, 이민 행정의 질적 제고, 적극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정책 추진의 방향으로 제시함
-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와 한국 사회 정착,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과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담음
- 이어서 정부는 사회 내 소수자의 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 개방성 증진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당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8월 현재까지 제1차 기본계획도 발표되지 못한 상황임

- 그 결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부문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사업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틀은 마련하지 못한 채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이 수행되어 옴
-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역할 정립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다양성 사업 콘텐츠의 개발 및 영역의 확대는 미흡하였음
- 즉,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과 존중,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 등을 위한 문화정책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장미혜 외, 2008), 이처럼 중앙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미진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에서도 문화 부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음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조직한 후 2021년에는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문화시설의 조성,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와 다문화사회 정착 촉진에 이바지할 예정임
-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한국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도 다문화 정도와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목적

-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가 다문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문화정책의 과제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다문화사회 정착’이란 양적인 측면(외국인주민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다문화사회로 정의되는 것에서 나아가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를 의미함
  - 그리고 인종과 국적뿐만 아니라 비주류 문화, 언어, 성, 장애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촉진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역할로 봄

## 2.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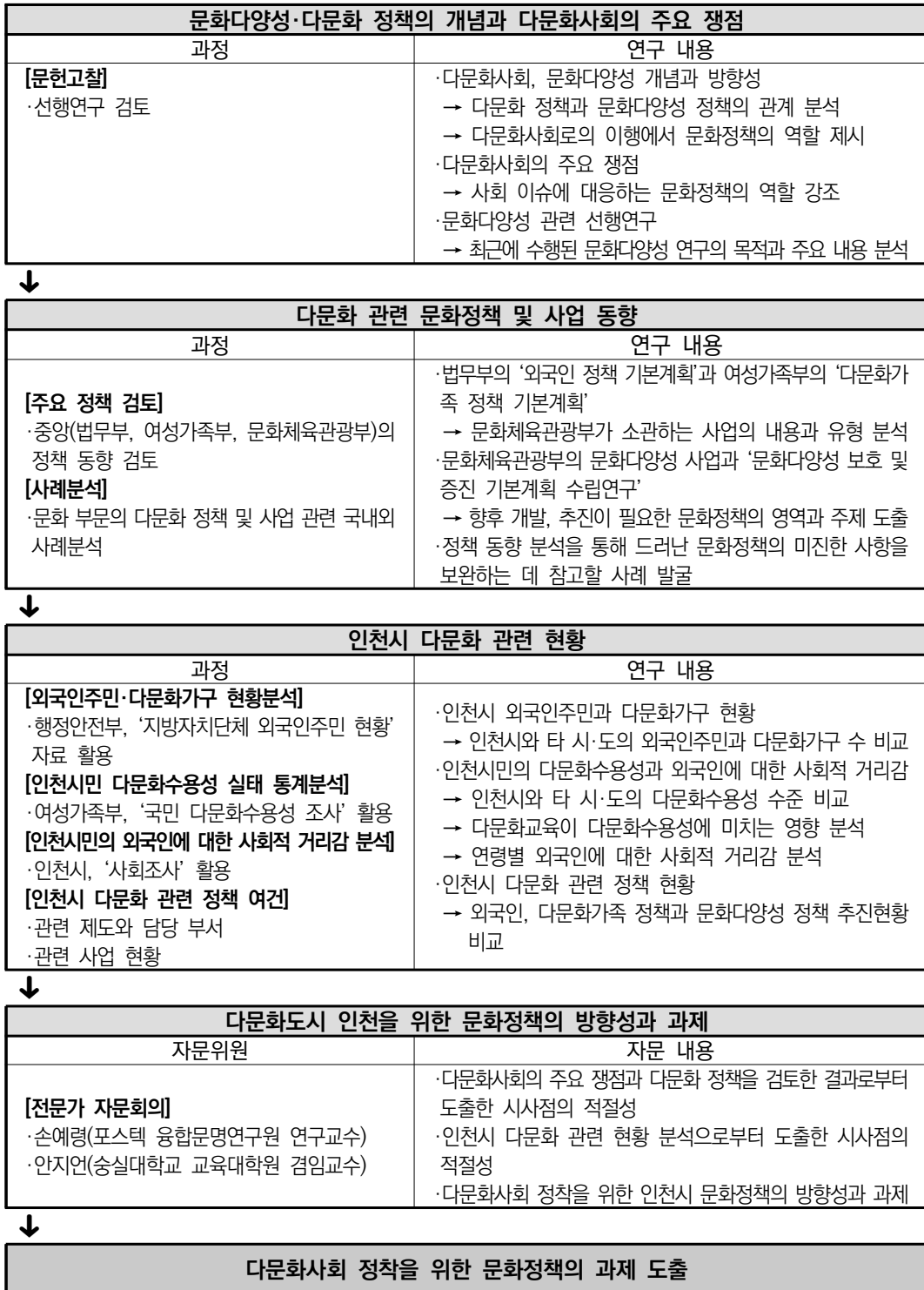
### 1) 연구범위

- 다문화사회 관련 문헌고찰
  -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의 개념
  -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 선행연구 현황
-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사업 동향 분석
  - 중앙의 다문화 관련 정책 동향
  -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사업 사례
-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분석
  - 인천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 현황
  -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 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사업 현황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도출

###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다문화·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조례,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등 검토
- 통계분석: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인천시 〈사회조사〉 자료 분석
- 사례조사: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사업 조사
- 자문회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시 문화정책의 역할 논의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 다문화사회 관련 문헌고찰







## 다문화사회 관련 문헌고찰

### 1. 주요 개념

#### 1) 다문화사회

- ‘다문화사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학자와 연구주체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는 방식이 구분됨
- 첫 번째 방식은 한 국가 및 지역 내에 이주민과 원주민이 공존하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서 다문화사회를 정의하는 것임
  - 다문화사회란 원래 그 지역을 살아가는 원주민과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와 타향에 사는 이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일컬음(허찬행·심영섭, 2015)
  - 다문화사회는 이질적인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지칭함(우리말샘)
  - 김광재(2019)는 다문화사회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동질적이었던 국가에 다양한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여러 기준에 의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사회로 정의함
-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사회를 정의하는 두 번째 방식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아가 여러 인종과 민족,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가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한 그러한 상태를 지향하는 사회로 정의하는 것임
  - 김혜순(2008:15)은 다문화사회를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 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향유하는 사회”로 정의함
  - 또한, 다문화사회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를 지칭하며 이들로 구성된 사회 혹은 이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함(이정우, 2012)

-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문화사회는 여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사회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음

## 2)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 채택되면서 본격화 되었음(이정금·이병환, 2020)
-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며,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함(협약 제4조)
-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당 법률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개념은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함(법률 제2조)

## 3)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징과 관계

- 이상의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면, 우선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유입에 따라 부상한 인권과 공존, 사회구성원 간 차별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특징을 지님

- 그리고 문화다양성 정책은 언어, 성, 계급, 장애, 인종, 국적 등에서의 소수자와 비주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차이를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특성을 나타냄
- 따라서 개념의 위계적 측면에서 보면, 한 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국적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 초점을 두는 다문화 정책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하위개념에 속함
- 외국인주민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는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의 전체영역 중 인종과 국적이라는 부분영역에 주목함

[그림 2-1] 문화다양성·다문화정책의 관심 대상과 지향



자료: 최영화 외(2017), 17쪽; 류정아(2014), 55쪽 참고하여 재구성

- 즉, 지역사회의 인종과 국적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을 강화해 관용과 포용력 향상, 사회통합적 가치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에 문화다양성 관점의 적용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현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이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2.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 및 선입견은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저해함
- 이에 따라, 근래에는 국내 거주 내·외국인의 공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상호존중과 배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유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배제, 차별적 태도는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1)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 과거에는 교과서에서도 단일민족의 정체성과 순수혈통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세계화 진전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게 됨
-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인 노동력 보완 차원에서 받아들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차등을 두는 것, 결혼이주여성 등에 동화정책의 차원에서 흡수통합만을 강조했던 것은 도리어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됨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이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인종과 국가, 사회계층에 따른 이주민 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미디어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 선동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음(경향신문, 2018)<sup>3)</sup>
  - 대중매체에 드러난 외국인의 모습은 범죄를 유발하고 공동체 질서를 와해시키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촉발하는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허찬행·심영섭, 2015)
  - 이는 외국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기도 전에 이들을 우리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상징화하고 각인시키는 그릇된 인식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3) 이혜리(2018.12.5.). 유엔 “한국 인종차별 심각…국가적 위기될 수도” 우려, 경향신문

## 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 문제

-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결혼 중개업자 등의 주도하에 성행하게 됨(조민식·송시형, 2011)
- 그런데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나라에서 온 아시아 여성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격 모독, 노동 강요 등 반인권적이고 불평등한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많이 보고됨(고기숙·정미경, 2012)
-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지위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참여해 권리를 인정받기란 어려운 실정임(변보기, 2017)
- 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최대희, 2018)
- 특히, 다문화가정의 2세대들은 이중언어로 인한 학습 부진 및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학교 적응에 실패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조영달, 2006)
  - 실제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종차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학교 등 교육 시설’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 2016)

## 3)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다문화에 관한 많은 연구는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문제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일 혈통주의와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이명진·최유정·최섯별, 2010)
-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밀집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생긴 불만족으로 인해 내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더욱 배타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생겨남에 따라(박효민 외, 2016),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소수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회학자인 파크(Park)와 짐멜(Gimmel)의 논의로부터 도출해 낸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친밀감의 정도이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를 의미함(이명진 외, 2010)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측정은 주로 ①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②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③동료로 지내는 것, ④이웃이 되는 것, ⑤친구로 지내는 것, ⑥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⑦내 배우자가 되는 것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문항을 활용함<sup>4)</sup>
- 지역사회와 이주민 밀집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인종 간 인접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인구)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을 제시함(박효민·김석호·이상림, 2016)
  - 위협이론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높인다는 것이고, 접촉이론이란 협력이 증대되고 부정적 고정관념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함(양재영·최명섭·고진수, 2017)
- 이러한 이론을 따르는 선행연구는 원주민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율 상승이 위협이론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기도 하지만(민지선·김두섭, 2013), 접촉이론에 근거하여서는 접촉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친분이 강화되어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다은 외, 2016)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인 증가가 반드시 원주민들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넓히는 결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맥락과 생활환경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원주민의 긍정적 인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므로 외국인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내·외국인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것은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는 타문화에 대한 포용의 원리에 입각한 문화적 성숙이 필수적이며(홍기원, 2007), 이를 창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4)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인종집단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117번 문항을 참고함

### 3.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김창수, 2018)은 문화다양성 자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 자원을 유형화한 후 활용 가능성이 큰 자원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인천연구원 인문DB에 수록된 자원의 특성을 해양성, 국제성, 관문성, 융합성으로 제시하고 서사성, 보편성, 대중성, 활용성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등의 인천 문화다양성 대표 자원을 도출한 후 다각적 활용방안을 제안함
-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배은주, 2018)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 다문화수용성 개념과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분석을 통해 다문화 교육 강화 등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 또한,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최영화 외, 2017)는 인천시의 사회문화적, 역사문화적, 문화예술적 다양성 분석과 국내외 문화다양성 지표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를 4개 부문(정책, 여건, 활동, 인식) 15개 세부 지표로 개발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발전 방안 연구』(심규선 외, 2018)는 부처별 다문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분류하고 문화다양성 주요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가치비평적 접근 방법을 통해 무지개다리 사업의 목적과 목표, 수혜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전달체계, 재원공급 방법을 분석하여 다수자와 소수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김정순(2012)은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여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2-1] 선행연구 요약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목적과 주요 내용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김창수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다양성 자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유형화</li> <li>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평가하여 활용 가능성이 큰 자원을 선별하고 활용방안 제시</li> </ul> </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 개념을 검토하고 문화다양성 자원의 개념 도출</li> <li>인천연구원 인문DB의 문화다양성 자원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인천 문화다양성의 특징을 해양성, 국제성, 관문성, 융합성으로 제시</li> <li>서사성, 보편성, 대중성, 활용성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등의 인천시 대표 문화다양성 자원을 도출</li> <li>특색있는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의 다각적 활용방안 제안</li> </ul> </li> </ul>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배은주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li> </ul> </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수용성 개념과 관련 정책 추진현황 검토</li> <li>인천시민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시행 및 조사 결과 분석</li> <li>다문화 교육 강화 등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li> </ul> </li> </ul>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최영화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li> </ul> </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 여건 검토</li> <li>인천시의 사회문화적, 역사 문화적, 문화 예술적 다양성 분석</li> <li>국내외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사례분석</li> <li>4개 부문(정책, 여건, 활동, 인식)의 1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li> </ul> </li> </ul>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연구	심규선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탐구</li> </ul> </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와 문화다양성 개념에 관한 관점 정리</li> <li>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분류</li> <li>무지개다리 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검토</li> <li>가치 비평적 접근 방법을 통해 무지개다리 사업의 목적과 목표, 수혜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전달체계, 재원공급 방법 분석</li> <li>다수자와 소수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등 향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사업 개선방안 제시</li> </ul> </li> </ul>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김정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li> </ul> </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 전개 과정 검토</li> <li>우리나라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 분석</li> <li>「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방안 제시</li> </ul> </li> </ul>



## 4. 소결

###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공존과 상호존중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동질적이었던 언어와 문화, 관습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과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
-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인천시 외국인주민은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하여 전년도 3.9%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증가해 인천시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같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여러 인종과 민족, 그리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상호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

### ❖ 현재의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 부문이 차지하는 영역 검토 필요

- 선행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쟁점을 해소하는데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변화와 다른 인종과 국적, 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적 성숙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에 따라 현재의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정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서 문화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문화사회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역할 확대를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현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 부문이 담당하는 영역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사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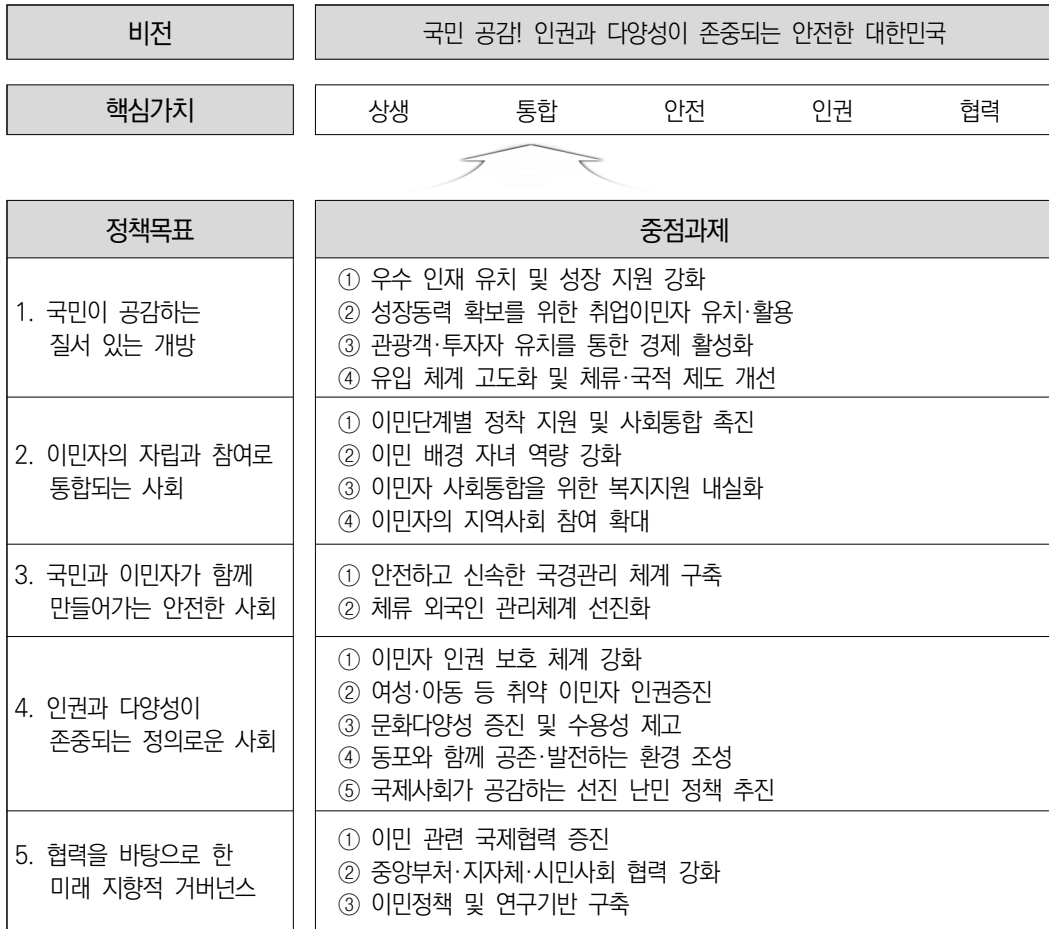
##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사업 동향

### 1. 주요 부처별 정책 동향

#### 1) 법무부

-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현재는 2018년에 발표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다양한 외국인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핵심가치로 상정함
- 법무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실현할 다섯 가지 정책목표로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각 목표를 따르는 중점과제를 제시함
- 그리고 각 중점과제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함

[그림 3-1]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자료: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사업은 중점과제 ‘1-3. 관광객·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임
- 그런데 ‘1-3. 관광객·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사업은 ‘MICE 연계 관광 활성화’, ‘크루즈관광 활성화’, ‘관광 편의·품질 제고’ 등임
- 이와 같은 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갈등의 해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본 절에서는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을 살펴봄

-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는 2개의 추진과제(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와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제는 6개임

[표 3-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제

중점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교원·관리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이민자 참여 활성화, 지역 문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교육부/법무부 협력사업)</li> <li>•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재한외국인을 위한 다언어 프로그램 정규 편성 및 콘텐츠 확대</li> <li>•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화다양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수집·제작·활용 지원</li> <li>•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선정 및 조사시행</li> </ul>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확산: 국민·이민자 등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li> <li>•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 이주민 자조 모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을 통한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li> </ul>

자료: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우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의 세부과제에는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가 있음
- 공공부문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교원·관리자 대상 다문화 역량 집합·원격 교육을 추진하고,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이민자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 문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운영함
-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은 재한외국인을 위한 다언어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고 콘텐츠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임
- 각종 문화다양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수집·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선정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변화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 다음으로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로는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국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안을 개발하고 교육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참여형 교육 연수를 기획·운영함
-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문화이해 활동 촉진을 위해 이주민 자조 모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2)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발표함
- 현재는 1차, 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수립된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따르는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3대 목표를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로 제시함
- 다섯 개 대과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동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이며, 이를 따르는 중과제와 세부과제의 수행을 위해 법무부, 교육부 등 17개 중앙 행정기관이 참여함
- 기본계획의 중과제 중 '2-1. 자립역량 강화',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4-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 포함됨



[그림 3-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li> <li>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li> <li>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li> </ul>
대과제	중과제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강화(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2.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 ②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④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자료: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제시됨
  - 양성평등 관점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반영해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완해야 하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국어 교육 협의체를 운영함
-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함
-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부처 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제시됨

-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다문화 관련 교육(다문화 이해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콘텐츠 및 전문 강사 활용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사업이 계획됨
-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의 세부과제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EBS) 제작 지원과 콘텐츠 제작 지원 시 반차별·인권관점에서 제작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제공이 제시됨
- 또한, 언론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관련 공모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다문화 수용성 사업홍보를 진행함

[표 3-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과제

대과제	중과제	세부과제
2.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 한국어 교육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사업 추진(여성가족부 협력사업)</li> </ul>
	사회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자조 모임 운영 지원 및 활성화(여성가족부/법무부 협력사업)</li> </ul>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 : 부처별 다문화 교육(다문화 이해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콘텐츠 및 전문 강사 연계 강화(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농촌진흥청 협력사업)</li> </ul>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EBS) 제작 지원, 반차별·인권관점에서 제작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제공(방송통신위원회 협력사업)</li> <li>•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다각화 : 언론 및 민간단체와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활동, 공모 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여성가족부 협력사업)</li> </ul>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이주민·선주민 교류 프로그램, 쌍방향 교류 체험 프로그램, 농촌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법무부/농촌진흥청 협력사업)</li> <li>• 문화시설 내에서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이주민 문화체험 시설 조성 및 전시</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의 중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문화시설 내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주민과 선주민 간 교류를 지원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등을 운영함
-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민 문화 체험시설 조성 및 전시를 추진하며, 미술관 내 제3세계 전시회 등 다문화 감수성 증진에 이바지할 작품 전시를 확대할 계획임

### 3) 문화체육관광부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4년마다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2014년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자 하였으나, 문화다양성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2020년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21년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 201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 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문화다양성 위원회’와 통합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통합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못함
- 이에 2020년 6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는 기존의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2015년에 수행한 바 있고,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을 위하여 크게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5년에 수행된 기본계획 수립연구의 주요 내용과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현황을 살펴봄

### (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sup>5)</sup>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사회·철학적 배경, 해외 주요 국가의 문화다양성 추진 사례, 문화다양성 진흥 관련 정책 추진현황 분석을 선행함
-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연구는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으로 ‘차이가 인정되고 다름이 존중받는 상생적 문화국가 실현’을 제시하고, 2대 정책목표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를 수립함
- 첫 번째 추진전략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실현을 위해 ‘문화다양성 홍보 강화’,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문화다양성 정보 접근성 제고’ 추진을 제안함
- 두 번째 추진전략은 ‘소수문화의 영향력 증대’로 ‘소수계층의 문화권 보장’, ‘소수계층의 사회문화 활동 여건 개선’, ‘다수자와 소수자 간 교류 확대’를 과제로 제안하였음
- 세 번째 추진전략인 ‘정책 추진 여건 조성’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확보’를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제안함
- 네 번째 추진전략은 ‘평가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문화다양성 영향평가 실시’, ‘문화다양성 분야 R&D 확대’,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음

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류정아, 2015)의 내용을 정리함

[그림 3-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의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

정책비전	차이가 인정되고 다름이 존중받는 상생적 문화국가 실현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li> <li>•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li> </ul>
추진전략	정책과제와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b>과제1 문화다양성 홍보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홍보</li> <li>• 문화다양성 홍보 채널 다각화</li> </ul>
	<b>과제2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보급</li> <li>•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li> </ul>
	<b>과제3 문화다양성 정보 접근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DB 구축</li> <li>• 맞춤형 정보 접근 채널 구축</li> </ul>
	<b>과제4 소수계층의 문화권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권 관련 법령 정비</li> <li>• 소수계층 차별 관행 개선</li> </ul>
	<b>과제5 소수계층의 사회문화 활동 여건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계층 맞춤형 시설 확충</li> <li>• 소수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li> </ul>
	<b>과제6 다수자와 소수자 간 교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주체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 확대</li> <li>• 소수계층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li> </ul>
정책 추진 여건 조성	<b>과제7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컨트롤 타워 구성</li> <li>• 지역 단위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li> </ul>
	<b>과제8 분야별 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전문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시행</li> <li>• 민간분야 전문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시행</li> </ul>
	<b>과제9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문화다양성 예산 편성</li> </ul>
평가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b>과제10 문화다양성 영향평가 시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평가체계 구축</li> </ul>
	<b>과제11 문화다양성 분야 R&amp;D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연구 수행</li> <li>• 문화다양성 조사 추진</li> </ul>
	<b>과제12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협력사업 추진</li> <li>•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li> </ul>

자료 : 류정아(2015)

## (2)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 ① 무지개다리

- 무지개다리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 문화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되는 사업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본 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성북, 부천, 인천, 대전 등 전국 12개 지역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들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3)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인종, 성별, 나이, 직업 계층 등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기본권을 서로 존중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화합과 문화적 진보를 창출하고자 함
- 사업선정은 연초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차별성, 운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무지개다리 수행기관을 선정함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문화예술 유관 공공기관 등이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교류 확대 사업,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임
- 2020년 기준 사업예산은 16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1개 수행기관 당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며, 3년 연속 지원하되 매년 평가에 따라 지원 금액을 결정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2020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공모에는 총 43건이 지원했고, 평가를 거쳐 총 26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중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규로 선정된 기관은 6개 기관임

-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영상위원회의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서구문화재단의 ‘서구 문화 예찬: 표현, 나눔 채움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각 8천만 원과 4천만 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음

[표 3-3]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 수행기관

신청기관명	지원신청 사업명	지원결정액(원)
<b>〈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중 최종 선정기관 - 20개 기관〉</b>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따로 또 함께 - 경남 무지개 마을	60,000,000
광주문화재단	채널우리누리	100,000,000
구로문화재단	구로채운 : 사이의 공동체를 이어내는 문화자주성	80,000,000
김포문화재단	2020 多幸-다양한 행복	60,000,000
김해문화재단	문화공존 김해 ; 일상이 되다	100,000,000
대전문화재단	우리多함께	60,000,000
부산문화재단	공감 메이커	80,000,000
부천문화재단	부천다양성 다다(多多)	60,000,000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마을-다양성洞!	60,000,000
세종시문화재단	多화만사상: '다름'이 '다음'을 만듭니다.	80,000,000
영등포문화재단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40,000,000
영월문화재단	영월 문화 다방	60,000,000
영주문화관광재단	있다, 그리고 있다. 연결하다. 그리고 공존한다	40,000,000
완주문화재단	존중의 가치	80,000,000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多多)익산	80,000,000
<b>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b>	<b>디아스포라영화제</b>	<b>80,000,000</b>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80,000,000
충남문화재단	서로, 소리	60,000,000
충북문화재단	오색빛깔 조약돌	60,000,000
충주중원문화재단	2020 무지개다리 리어카	40,000,000
<b>〈신규 신청 기관 중 최종 선정기관 - 6개 기관〉</b>		
경북문화재단	한다발 스물 세송이	40,000,000
금정문화재단	금정 문화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가가 가가'	40,000,000
당진문화재단	다(多)모인(人)! 당진	40,000,000
울산문화재단	오색빛깔 무지개 새, '진짜 울산' 찾기	40,000,000
<b>인천서구문화재단</b>	<b>서구 문화 예찬 : 표현, 나눔, 채움의 문화다양성</b>	<b>40,000,000</b>
포항문화재단	마카도 공감	40,000,000
총 지원예산(민간 경상 보조금)		1,600,000,000

자료: 2020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 ② 문화다양성 주간

- 2002년 UN은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을 극복하며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매년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기념함

- 우리나라는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률 제11조에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기념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다양성 주간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더불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0년에는 26개의 지역 주관기관과 함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행사, 캠페인, 포럼 등을 다채롭게 진행함
  - 올해 2020년은 ‘차이를 즐기자’를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행사와 강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3-4] 지역 주관기관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프로그램

권역	주관 기관명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명
강원권	영월문화재단	• 문화다양성의 날 <페스타>
수도권	구로문화재단	• 문화, 서로 다르면 함께 빛난다
	김포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마음 두드림’
	부천문화재단	• 2020 부천다양성 다다(多多)
	성동문화재단	• 다양성洞에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 영등포 문화다양성 미디어 포럼
	인천서구문화재단	• 서구에 뜬 무지개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 제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영남권	종로문화재단	• 오색 무지개 종로 <영화 속 문화다양성 이야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경북문화재단	• 한 다발 스물 세송이
	금정문화재단	• 금정 문화다양성 캠페인 ‘다가치 금정’
	김해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부산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무지의 장막’
	영주문화재단	• 영주의 다양한 문화 한걸음
	울산문화재단	• 오색빛깔 무지개 새, ‘진짜 울산’ 찾기
	포항문화재단	• 마가도공감
충청권	당진문화재단	• 다(多)모인(人)! 당진
	대전문화재단	• 2020 충청권 리서치북 제작
	세종시문화재단	• 2020 세종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다가치 온라인’
	충남문화재단	• 모두의 이야기 ‘서로, 소리’
	충북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충주중원문화재단	• 무지개다리 리어카
호남권	광주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캠페인
	완주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강연회 ‘풀싸’
	익산문화재단	• 로컬 콜라보레이션 ‘우리의 시간’: 문화다양성 주간 특집

자료: 2020년 문화다양성 주간 안내 리플렛



- '문화다양성 주간' 동안 평일 오후 6시에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 특집 온라인 연속강연 차이를 즐기자'를 온라인 채널(유튜브, 네이버티브이, 카카오티브이)을 통해 방영함
- 그리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문가 콜로키움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디지털 기반(플랫폼) 시대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 지역 주관기관 26곳에서는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 강연회와 토론회(포럼), 공모전과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
- 지역 주관기관 중 인천서구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였고, 인천시영상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함

### ③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고자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 학습지도안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 본 사업은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관련 조기 교육 시행을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됨
- 2015년 공모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침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지침서(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커리큘럼(강원대산학협력단)이 마련되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마련된 문화다양성 교육 지침서를 활용해 매년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문화다양성 직무연수'와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함
  -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문화다양성 직무연수는 교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됨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연수 참여자가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중앙·지방 공무원, 문화예술 기관 종사자, 무지개다리 주관기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됨

- 최근에 시행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문화다양성 직무연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온·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교수법,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됨
- 해당 기간에 507명이 온라인 연수를, 50명이 오프라인 연수를 수료하였고 부산지역 교원의 수료 인원이 가장 많았음
- 온라인 연수를 수료한 인원 중 1.4%, 오프라인 연수를 수료한 인원 중 2%만이 인천지역 교원으로 조사되어, 수료 인원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음

[표 3-5]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2019.12.~2020.2.) 지역별 수료 인원

연번	지역	온라인 연수			오프라인 연수		
		신청인원	수료인원	전체구성비 (수료기준)	신청인원	수료인원	전체구성비 (수료기준)
1	강원	18명	18명	3.6%	3명	3명	6%
2	경기	48명	48명	9.5%	12명	11명	22%
3	경남	52명	52명	10.3%	6명	5명	10%
4	경북	31명	31명	6.1%	5명	5명	10%
5	광주	19명	19명	3.7%	-	-	-
6	대전	18명	18명	3.6%	-	-	-
7	부산	95명	95명	18.7%	2명	2명	4%
8	서울	76명	76명	15%	17명	15명	30%
9	인천	7명	7명	1.4%	1명	1명	2%
10	전남	33명	33명	6.5%	2명	2명	4%
11	전북	25명	25명	4.9%	2명	1명	2%
12	대구	8명	8명	1.6%	1명	1명	2%
13	울산	22명	22명	4.3%	-	-	-
14	세종	8명	8명	1.6%	2명	2명	4%
15	충남	26명	26명	5.1%	-	-	-
16	충북	18명	18명	3.6%	1명	1명	2%
17	제주	3명	3명	0.6%	1명	1명	2%
합계		507명	507명	100%	55명	50명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제공(2019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교육 교원연수)

- 2020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은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및 차별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모색을 목표로 추진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 교육은 1박 2일 형태로 전국을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각각 부산, 전주, 서울, 대전에서 진행하였음

[표 3-6] 2020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현황

연수 회차	1차 연수 (부산)	2차 연수 (전주)	3차 연수 (서울)	4차 연수 (대전)	합 계
참여 인원수	31명	26명	37명	30명	124명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제공(2019~20년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결과자료집)

- 교육에는 총 12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42%는 교육 분야, 30%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였고, 회사원과 전문직이 각각 5%, 공무원과 학생이 2%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해도가 상승하였고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적용할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함

#### ④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

- 문화다양성아카이브(Cultural Diversity Archive)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원을 축적·유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문화다양성아카이브 홈페이지)
- 이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대사관·문화원, 광역·기초 문화재단이 자료의 축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아카이브에서는 다원 문화예술, 커뮤니티 예술, 다국적문화예술을 소개하고, 각종 학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등을 안내함
- 그리고 이주민영화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관한 내용도 연도별로 소개하고 있음
- 특히 아카이브 자료실에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우수사례, 교육자료 등의 발간자료가 탑재되어 있음

#### 4) 주요 사업 정리

-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을 정리하면 [그림 3-4]와 같고,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 문화다양성 주간,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즉,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크게 ‘교육’, ‘문화사업(문화다양성 공모사업)’, ‘문화행사·홍보’, ‘아카이브·지표’로 구분됨
-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의 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정책의 추진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개발·추진할 필요 있음

[그림 3-4] 다문화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요약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내 문체부 소관 사업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내 문체부 소관 사업
	동일·유사사업		
교육	• 문화다양성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 공무원·교원 대상 다문화·문화다양성 교육	• 한국어 교육 강화
문화사업/ 문화다양성 공모		• 무지개다리 사업 • 이주민 자조모임 지원	•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다문화 체험시설 조성 및 전시
행사/홍보	•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정규 편성	• 언론 등과 함께 다문화 인식 개선 홍보
아카이브/지표	•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운영		

- 그러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에 담긴 사업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여러 영역에 걸쳐 개발·추진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행사, 공모사업 형태 위주로 진행됨

-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사업은 ‘이민 행정 개선’, ‘사회통합 사업 내실화’, ‘국경·체류 외국인 관리체계 선진화’, ‘인권 존중’,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영역으로 구분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 지원’, ‘사회참여·통합’,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다문화수용성 제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영역으로 구분됨
-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책은 기존의 문화다양성,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을 강화·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기반 및 체계 확보, 공동체의 사회통합, 외국인·이주민의 인권 향상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개발·추진할 필요 있음

## 2.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사업 사례

-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문화정책 부문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및 체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이주민의 인권 향상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강화가 필요함을 드러냄
- 이에 인천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지역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문화정책의 강화 기반을 확보한 사례와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 민간의 문화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봄

### 1) 다문화 정책 강화 기반 확보 사례

- 문화정책에서 다문화사회 정착 관련 사업은 문화다양성 정책 내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7406호)에서도 드러남
- 이에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조항을 통해 문화다양성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광역 시·도 중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총 6곳으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가 있음
- 또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목포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천광역시 서구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함

[표 3-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구분	지역
광역 시·도(6곳)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시·군·구(7곳)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목포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천광역시 서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2020.11.09.)

-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문화다양성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도시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실행계획 수립 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함
  -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를 심의·조정하는 것임
  - 광주광역시 조례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두 지역의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함을 제시함
- 광주광역시의 경우 2년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반영함을 규정함
  -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6195호)에 근거하여 5년마다 경기도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따라서 경기도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지역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함
- 두 지역 모두 조례를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문화다양성·문화소통 센터)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 밖에 두 지역의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협력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
- 다만 광주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을 정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 기금에 관한 사항은 문화다양성 법률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조항이어서 광주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보임

[표 3-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

구분	경기도	광주광역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 기여</li> </ul>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따르는 경기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행계획 수립 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li> </ul>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li> <li>•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경기도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li> <li>•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li> </ul>
분과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li> </ul>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홍보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li> </ul>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마다 실시</li> </ul>
전문인력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인력 양성 사업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관련 정보 수집·조사, 교재 개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li> </ul>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소통센터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센터 설치</li> </ul>
지역협력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 설치</li> </ul>
문화다양성기금 설치 및 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li> </ul>

자료 :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6725호);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5111호)

- 일찍이 캐나다는 다문화 유산의 보존과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8년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함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법」은 정부가 인종, 민족, 종족, 종교에 따른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근원적 특징으로 인정하고 다문화적 유산을 확장·보호하기 위해 헌신함을 명시함



-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해와 캐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문화유산을 보존, 증진 및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유산과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며, 캐나다 미래 형성에 귀중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촉진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창의성을 촉진한다’ 등을 캐나다 다문화 정책 추진의 방침으로 제시함
- 또한,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개발과 시행에 있어 자문을 얻기 위한 ‘다문화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매년 다문화 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캐나다의 다문화 제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소속감을 증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의 근본적 특징으로 간주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 왔다고 평가됨(유영심, 2018)

## 2) 다문화사회 인권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사례

### (1) 김해문화재단 ‘말모이’

-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해 온 김해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문화다양성을 침해하는 공공언어·표현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사업을 추진함(김해문화재단, 2019)
- 2019년 말모이 사업에는 20~50대 김해시민 10명이 서포터즈로 참여하여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혐오단어 및 차별단어를 발굴하고 활동 자료집으로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 말모이’를 제작하였음
  -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단어를 주제별로(‘연령’ 9개, ‘성’ 48개, ‘장애’ 14개, ‘신체육설’ 11개, ‘인종·국가’ 11개, ‘지역·기타’ 33개, ‘우리말 속 일본어’ 9개) 발굴하고 대체 및 순화 단어를 제안하였음
  - ‘인종·국가’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을 침해하는 표현으로 선정된 단어에는 외궤(외국인 팬+바퀴벌레), 쪽발이·오랑캐·왜놈, 코쟁이·양놈·양키, 튀기, 흑형 등이 있음
  - 김해문화재단은 제작한 활동자료집을 김해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배포함

- 김해문화재단의 2019년 말모이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상의 혐오·차별 언어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받으며 대상을 차지함(경남신문, 2020)<sup>6)</sup>
- 2020년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기반의 네트워크로 세분화하여 혐오 표현을 모으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김해문화재단, 2020)<sup>7)</sup>

## (2)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인권 강화 연극 ‘찌로와 칠호’

-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주최한 토론편극인 ‘찌로와 칠호’는 극단 ‘해’와 ‘한양대 공연예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4년 제작하였음
- 연극 ‘찌로와 칠호’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허용된 노동력임에도 근로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한국인의 이중적인 시선 등을 연극을 통해 풀어내고자 기획됨(서울시정일보, 2014)<sup>8)</sup>
- 이 연극은 2014년 10월 16일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성동·성북·은평·양천·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명동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진행됨(연합뉴스, 2014)<sup>9)</sup>
  - 관객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여 상황을 바꿔보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민중의 소리, 2014)<sup>10)</sup>
- 연극 ‘찌로와 칠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연극에 담아냄으로써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문제 개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6) 이명용(2020.2.27.). 김해문화재단 ‘말모이’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 대상. 경남신문

7) 김해문화재단 웹진(2020.10.27.). 문화다양성 <말모이> 여성 네트워크 ‘발칙한 XX들’ 여성이 살아온 세상속으로. 김해문화재단

8) 서승완(2014.10.16.). [공연] 연극 “찌로와 칠호”,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얘기하다. 서울시정일보

9) 인교준(2014.10.18.).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인권 다룬 ‘찌로와 칠호’ 상연. 연합뉴스

10)윤정현(2014.10.15.). 한양대,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위한 연극 ‘찌로와칠호’ 공연. 민중의 소리

### (3) AMC Factory

- AMC Factory(Asia Media Culture Factory)는 다양한 인종과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제약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2011년 10월에 설립됨(AMC Factory 홈페이지)
- AMC Factory가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진행한 대표적 사업에는 ‘서울 이주민예술제 개최’, ‘다문화 예술극단 player 결성·공연’, ‘이주민 노동·인권 프로젝트 운영’ 등이 있음
- 2012년부터 AMC Factory가 주최해 온 ‘서울 이주민예술제’는 국적, 종교, 성별, 인종의 구분을 넘어 예술로 소통하고 새로운 창작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자 기획됨
  - 2017년부터 (사)이주노동희망센터와 공동으로 예술제를 주최하고 있으며, 2020년 9회차를 맞이한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전 신청자 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하였지만 AMC Factory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됨
  - 축제는 9월 12일~13일, 9월 19일에 ‘음악공연’, ‘영화’, ‘영상전시’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었음. ‘음악공연’은 이주민 뮤지션의 음악공연으로 진행되었고, ‘영화’ 분야는 이주민 감독이 제작한 작품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구성됨. ‘영상전시’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직접 만든 영상과 미술작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함
- 2012년에 결성된 ‘다문화예술극단 player’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연극을 제작하고 공연함
- 2012년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7~8월 연극 연기 워크숍을 시작해 서울 이주민예술제 공연, 창작 음악극 〈카페 령길라〉 순회공연 등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해 옴
  - 〈카페 령길라〉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할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 등의 내용을 다룸
  - 2018년에는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나나인권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우리동네 식당’을 제목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음(영등포신문, 2018)<sup>11)</sup>

11) 신예은(2018.10.19.). ‘2018년 나나 인권페스티벌’ 개최. 영등포신문

- ‘이주민 노동·인권 프로젝트’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한 프로젝트임
- 미디어 콘텐츠는 ‘알면 문제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5개의 시리즈를 제작해 8개 언어(한국어, 영어, 벵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로 자막을 제공함(AMC Factory 페이스북 그룹)
  - 각 시리즈는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에 제작된 시리즈에는 ‘산재 기준 처리 방법’, ‘브로커를 통한 송금 피해 줄이기’, ‘2019년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부당한 연차 강요’, ‘긴급 상황 시 대처법’이 담겨있으며, 총 39분의 러닝타임으로 제작되었음

### 3. 소결

#### ❖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역할 강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서도 문화정책은 부수적 역할에 머무름
-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인권 및 사회 적응 문제가 부상한 배경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위주로 정책 및 학술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역할 자체가 강력히 요구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이민자의 정착 지원, 인권 보호, 국제결혼 피해 예방,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관련 사업도 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음
- 그러나 문화정책이 소관해 온 내·외국인 간 교류 증진,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업들은 행사 성격으로 추진되거나 사업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의 개선 및 사업영역의 확대는 미진한 실정임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의 기본틀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고, 해당 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사업들은 내·외국인 교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이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에서도 문화가 담당할 역할을 정립·강화할 필요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한국어 교육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 무지개다리를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 공모사업’, 문화다양성 주간과 같은 ‘행사 및 홍보 사업’, 그리고 ‘아카이브 및 지표 관리 사업’으로 구분됨
  - 그러나 문화다양성 교육은 주로 공무원·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다양성 주간 사업은 무지개다리와 연계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또한,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표 관리 등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음

- 앞으로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존중,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차별 해소를 위해 문화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필요

- 문화 부문에서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영역을 포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구축이 요구됨
- 이미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주를 정함
-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해 다문화 정책에서도 역할을 확대해야 함
- 또한,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외국인의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필요 있음
  - 사례로 살펴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다룬 연극이나 AMC Factory의 이주민 인권 향상 프로젝트는 ‘문화적 다양성, 타자에 대한 이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외국인의 인권이 경시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외국인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도함
  - 김해문화재단의 ‘말모이’ 사업도 김해시민이 함께 모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차별이나 혐오감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을 발간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도모함
  -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것은 지역에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함

##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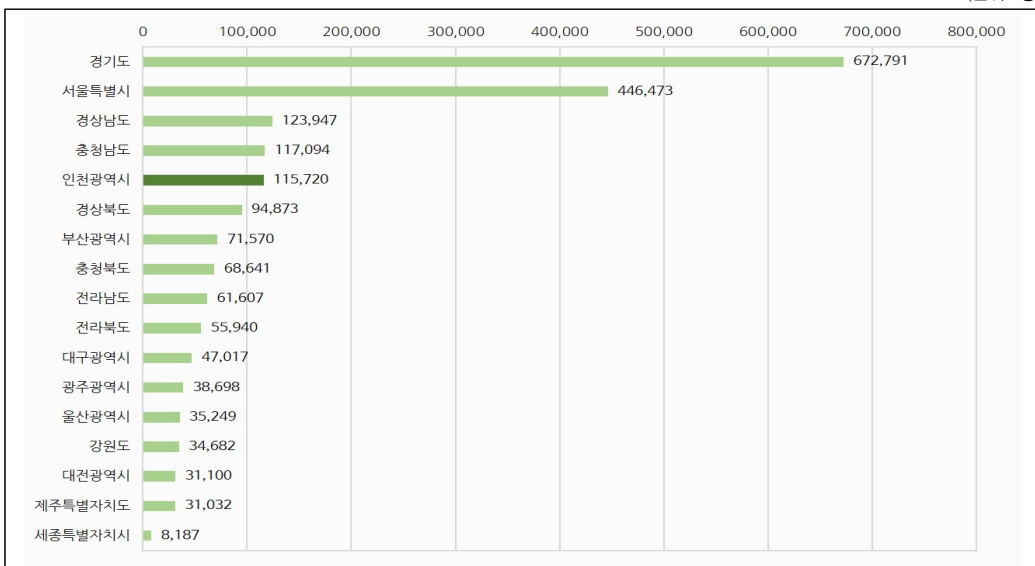
##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과 진단

### 1. 인천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 현황

-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음
  - 2020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자료임
- 17개 시·도 중 경기도 외국인주민이 67.3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시 44.6만 명, 경상남도 12.4만 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인천시 외국인주민은 약 11.6만 명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음

[그림 4-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8)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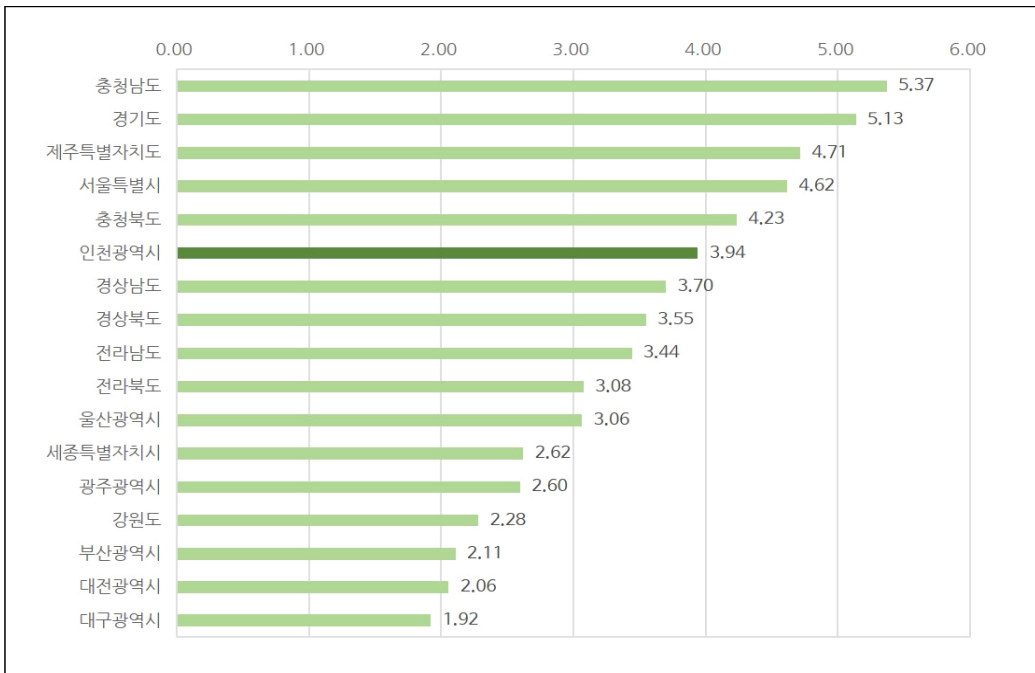
주 : 2018년 11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국가통계포털 다운로드: 2020.7.28.)

- 2018년 기준 17개 시·도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5.37%로 가장 높음
- 충청남도 다음으로는 경기도 5.13%, 제주도 4.71%, 서울시 4.62%, 충청북도 4.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의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94%로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음

[그림 4-2]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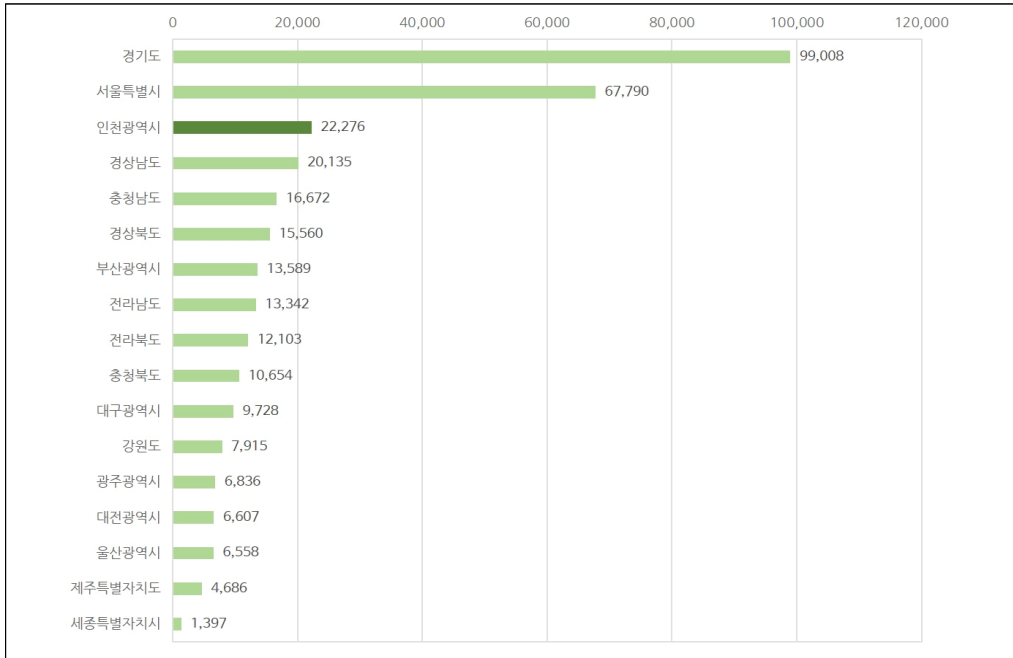
주 : 2018년 11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국가통계포털 다운로드: 2020.7.28.)

- 2018년 기준 다문화가구 현황은 외국인주민 수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냄
- 다문화가구는 경기도 9.9만 개, 서울시 6.8만 개, 인천시 2.2만 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즉,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는 수적인 측면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3] 다문화가구 수(2018)

(단위: 개)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국가통계포털 다운로드: 2020.7.28.)

## 2.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실태<sup>12)</sup>

### 1) 다문화수용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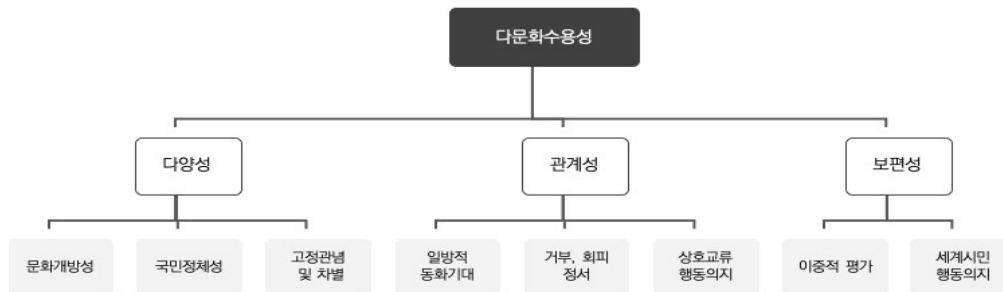
- 1980년대 4만 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결혼, 근로, 학업 등의 이유로 1995년에는 1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50만 명, 201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음(여성가족부, 2018)
- 이와 더불어 전체인구 중 장기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1990년까지 0.1%에 불과했으나 2005년 1.05%, 2017년 3.06%를 차지하였고, 이는 국내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과 변화하는 사회구성원에 맞춘 사회정책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로의 전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의 사회 적응 문제,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 마련을 요구함

12) 김이선 외(2019)의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여 정리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은 인종, 국적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존재에 대한 배척, 차별, 위협 의식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용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발전됨
- 그래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 2018년에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옴
- 이 조사는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3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따르는 8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활용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함
- ‘다양성’ 차원은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며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함
- 이러한 다양성 차원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15개 문항으로 측정됨
  - 하위요소 중 ‘문화 개방성’은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인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측정함
  - ‘국민 정체성’은 국적, 한국어 능력, 전통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국민으로 인정하는 자격요건으로서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함
  - ‘고정관념 및 차별’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함
- ‘관계성’ 차원은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한 것으로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요소로 구성되며, 11개 문항으로 측정됨
  - ‘일방적 동화기대’는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인 외국인이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임

- ‘거부·회피 정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피부색이나 외국인에게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측정함
- ‘상호교류 행동 의지’는 외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의지를 측정함
- ‘보편성’ 차원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신념과 태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측정하고자 ‘이중적 평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9문항으로 측정됨
- ‘이중적 평가’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외국인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함
- ‘세계 시민 행동 의지’는 기아, 인권 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함

[그림 4-4] 다문화수용성 구성 개념



자료: 김이선 외(2019), p.37

## 2) 다문화수용성 현황

### (1) 조사 개요

- 본 절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한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4,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응답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표 4-1]에 제시함
- 조사의 내용은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이주민 접촉 경험, 국민 정체성,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성됨

[표 4-1]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31	50.77	거주 지역	서울	475	11.88
	여성	1,969	49.23		부산	274	6.85
연령대	20대	773	19.32		대구	230	5.75
	30대	758	18.95		인천	240	6.00
	40대	909	22.73		광주	170	4.25
	50대	916	22.90		대전	183	4.58
	60세 이상	644	16.10		울산	160	4.00
혼인상태	미혼	1,021	25.52		세종	70	1.75
	배우자 있음	2,869	71.72		경기	486	12.15
	기타	110	2.75		강원	200	5.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04	2.61		충북	200	5.00
	100 ~ 199만 원	292	7.32		충남	220	5.50
	200 ~ 299만 원	672	16.85		전북	210	5.25
	300 ~ 399만 원	1,046	26.24		전남	210	5.25
	400 ~ 499만 원	986	24.73		경북	270	6.75
	500 ~ 599만 원	559	14.02		경남	280	7.00
	600만 원 이상	328	8.23		제주	122	3.05
다문화 교육 참여 경험 <sup>13)</sup>	있음	177	4.4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40	11.01
	없음	3,823	95.58		고등학교 졸업	1,570	39.2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1,702	42.55		전문대학교 졸업	741	18.54
	중소도시	1,812	45.30		4년제 대학교 졸업	1,195	29.90
	읍/면부	486	12.15		대학원 재학 이상	51	1.28

자료: 여성가족부,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분석

## (2) 조사의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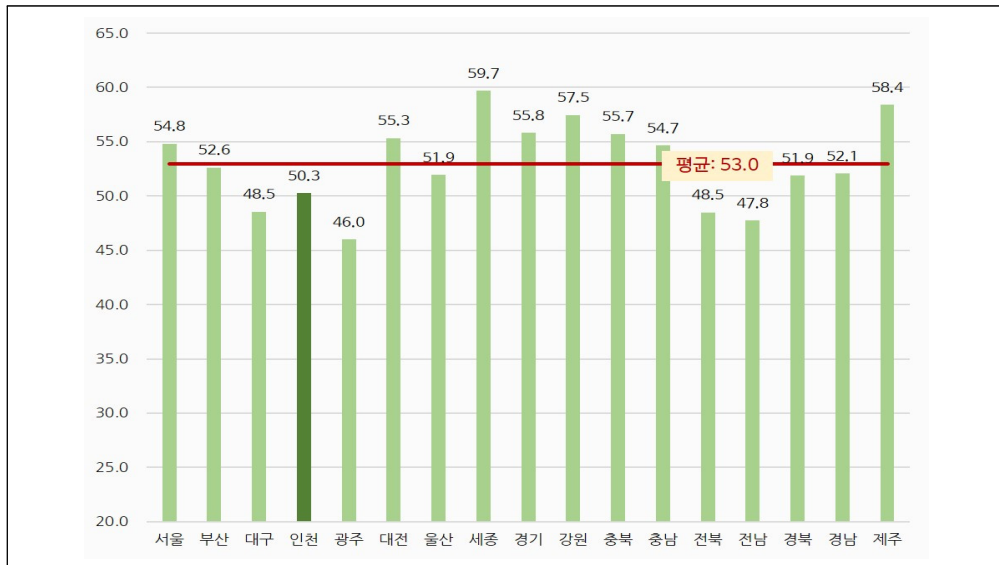
-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함<sup>14)</sup>
- 다문화수용성 점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53.0점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59.7점, 제주도 58.4점, 강원도 57.5점 순으로 높음
- 인천시의 다문화수용성은 50.3점으로 광주(46.0), 전남(47.8), 대구·전북(48.5)에 이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13)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이주민 출신 국가의 역사와 문화', '이주민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 문제',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등으로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제시함(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표)

14)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와 역부호화 문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1〉에 제시함

[그림 4-5] 시·도별 다문화수용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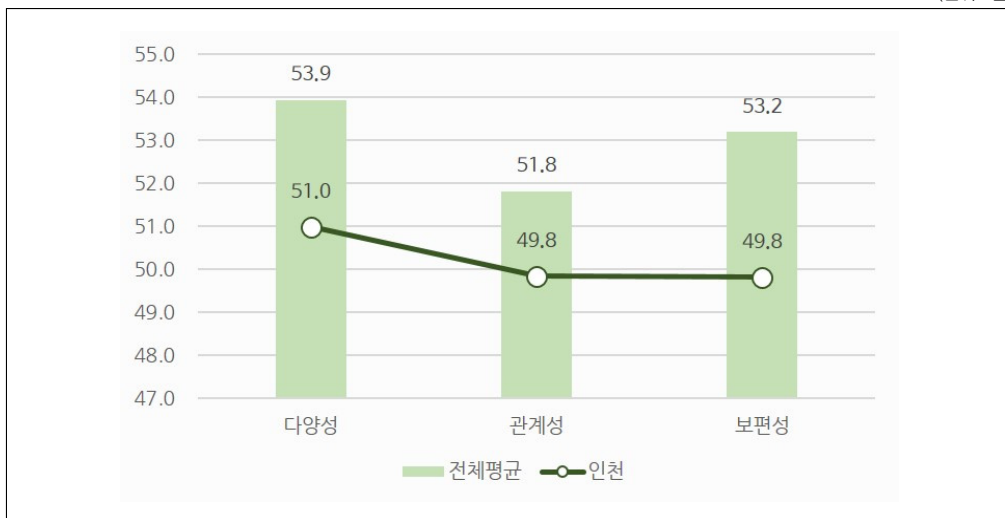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분석

- 다음으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구성하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별로 전국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각각 53.9점, 51.8점, 53.2점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다양성은 51.0점, 관계성은 49.8점, 보편성은 49.8점으로 조사되어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서 인천시의 이주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을 드러냄

[그림 4-6]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구성하는 각 차원에 대한 분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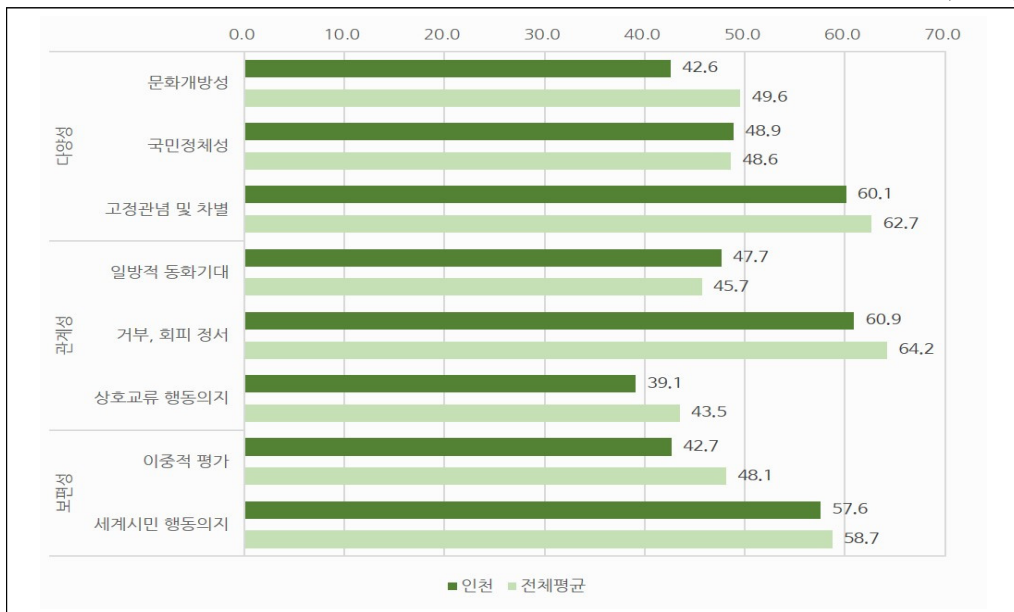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분석

- 구체적으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전국 평균과 인천시의 점수를 비교해 살펴봄
- 인천시는 8개의 하위요소 중 2개 요소(국민 정체성과 일방적 동화기대)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방적 동화기대의 경우 전국 평균은 45.7점, 인천시는 47.7점임. 국민 정체성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점, 인천시가 48.9점으로 차이가 미미하였음
- 그리고 인천시는 특히 문화 개방성,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항목에서 전국 평균 대비 점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문화 개방성에서 인천시 42.6점, 전체 평균 49.6점, 거부·회피 정서에서 인천시 60.9점, 전체 평균 64.2점, 상호교류 행동 의지에서 인천시 39.1점, 전체 평균 43.5점, 이중적 평가항목에서 인천시 42.7점, 전체 평균 48.1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냄
- 전체 하위요소에서 인천시의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상호교류 행동 의지'(39.1점)로,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에 관한 관심과 상호이해가 사회의 질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내·외국인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7]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하위요소에 대한 분석

(단위: 점)



자료: 여성가족부,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분석



- 이처럼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하는 기회로서 다문화 교육 경험 현황을 살펴봄
-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응답한 인천시민 240명 중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에 불과하고,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6.7%에 달함

[표 4-2] 인천시민의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다문화 교육 경험 없음	232	96.7
다문화 교육 경험 있음	8	3.3
계	24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 활용하여 분석

- 이처럼 낮은 다문화 교육 경험률이 낮은 다문화수용성으로 이어지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여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분석 결과,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연령이 많을수록, 남정보다는 여성이 다문화수용성이 낮고,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거주자인 경우,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음
- 이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함

[표 4-3]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다(준거=없다)	5.342 ***	0.835
연령	-0.098 ***	0.019
여성(준거=남성)	-0.829 *	0.341
지역규모(준거=대도시)		
중소도시	1.834 ***	0.362
읍/면	2.266 ***	0.558
혼인상태(준거=미혼)		
유배우자	-0.019	0.546
기타(이혼/사별)	0.775	1.190
학력	1.404 ***	0.208
월평균가구소득	0.354 **	0.125
상수	50.966 ***	1.215
N	3,974	
R <sup>2</sup>	0.086	

주 : \*\*\*  $p < .001$ ,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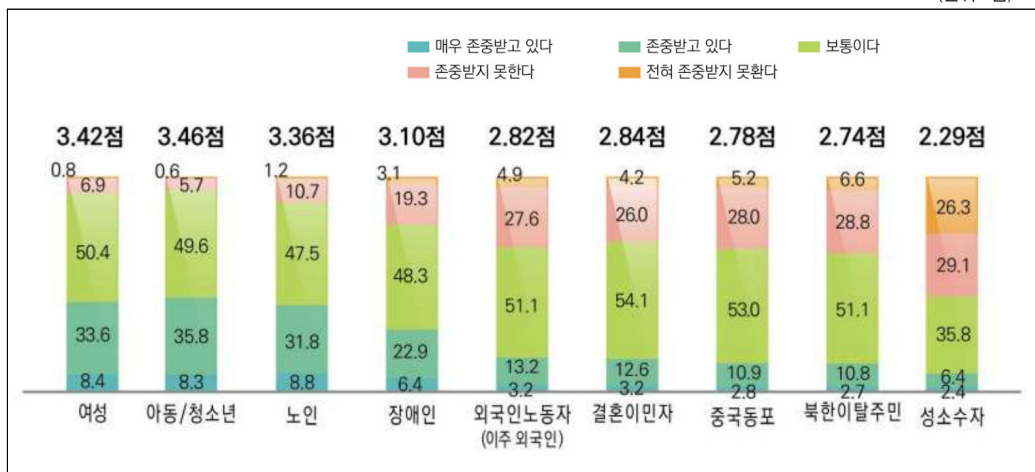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3. 인천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현황

- 2019년 인천시는 시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를 18,2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함
- 인천시 사회조사의 ‘시민사회 영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감 인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해 인천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현황을 분석함
- 우선, 인천시 사회조사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사람들(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이주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국 동포, 북한 이탈 주민, 성 소수자)이 차별받지 않고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활용해 지역사회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감 정도를 파악함
- 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천시민의 존중감 인식을 5점 만점으로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4-8), 외국인노동자·이주 외국인(2.82점), 결혼이민자(2.84점), 중국 동포(2.78점), 북한 이탈 주민(2.74점)에 대한 존중감은 여성(3.42점), 아동·청소년(3.46점), 노인(3.36점), 장애인(3.1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나와 다른 인종, 국적을 가진 대상에 대한 이해, 존중감 및 포용 수준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림 4-8]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감 인식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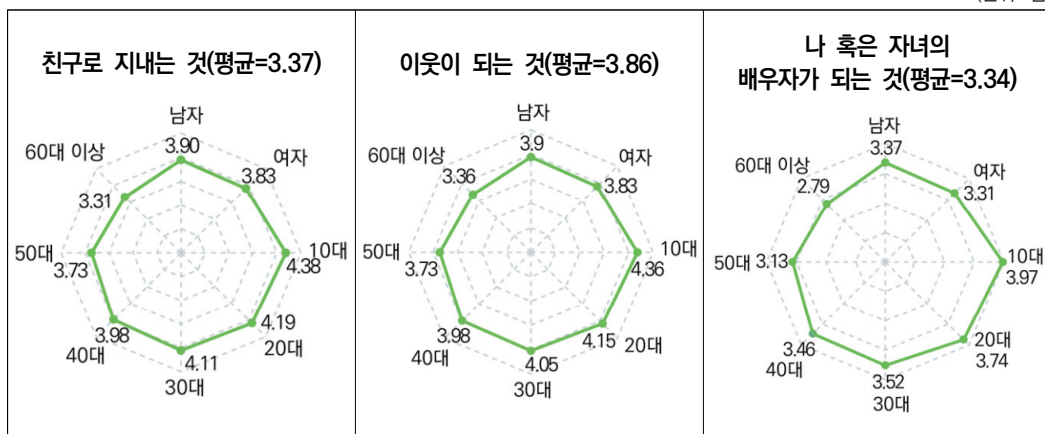


자료: 2019 인천의 사회지표, p.264

- 다음으로, 인천시 사회조사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이웃·나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함
  -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은 보가더스(Bogardus) 척도를 활용해 나와 다른 인종, 민족 등의 사회집단을 방문객, 같은 국민,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자녀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태도로 측정함(양재영·최명섭·고진수, 2017; 이명진·최유정·최셋별, 2010)
- 전체 평균으로 보면, 3개 문항 모두에서 동의하는 수준이 약간 그렇다(=4점) 이상을 나타내지 못함
  -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활용해 동의 수준을 응답하도록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인천시민은 외국인이 나의 가족(나 혹은 자녀의 배우자)이 되는 것(3.34점), 친구가 되는 것(3.37점), 이웃이 되는 것(3.86점) 순으로 동의 수준이 낮음
- 이는 지역사회에 외국인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와 ‘외국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하며,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종과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등의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촉진할 사회통합 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9]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점)



자료: 2019 인천의 사회지표, p.266

## 4. 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

- 제3장에서 다문화사회 정착과 관련한 중앙의 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크게 ‘외국인’, ‘다문화가족(이주여성)’, ‘문화예술의 다양성’의 영역에서 계획·추진되고 있었음
- 인천시의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도 이와 같은 정책영역을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

[그림 4-10] 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 조사 분야

구분		외국인	다문화가족	문화다양성
국가	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담당 행정기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제도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없음*
	담당 부서	가족다문화과		문화예술과
		외국인생활지원팀	다문화가족팀	문화정책팀
	관련 시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주: \* 2020년 10월 현재 인천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인천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제정됨

### 1) 관련 제도와 담당 부서

#### (1) 제도

- 인천시의 다문화 관련 제도로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5746호)가 있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7406호)을 따르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 인천시도 해당 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6년 제정됨
- 해당 조례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세계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이 문화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표 4-4]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문화정책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li> <li>•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등</li> </ul>
사업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제16·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와 관련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li> </ul>
세계인의 날 운영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인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li> <li>•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li> </ul>

자료: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746호)

## (2) 담당 부서와 주요 사업

### ❖ 가족다문화과

- 인천시에서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는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가족다문화과임
- 가족다문화과는 가족지원팀,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생활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다문화가족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이 인천시의 다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
- 인천시의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2020년 가족다문화과의 업무계획에서 다문화가족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의 주요 사업을 살펴봄

[표 4-5] 2020년 가족다문화과 내 다문화가족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의 주요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		세부사업	담당팀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치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이용 연인원(명)	8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li> <li>기본사업: 가족, 성 평등, 인권에 관한 집합 교육·상담</li> <li>특성화 사업: 방문 교육 사업, 사례관리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ul>	다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ul>	
	결혼 이민지역량 강화프로그램 만족도(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li> <li>결혼이민자 인력풀 조사</li> <li>다문화 강사 양성 및 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li> <li>취업 연계 직업훈련 교육</li> <li>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li> <li>다문화 인식개선 활동가 강사로 및 운영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 강화 지원</li> <li>결혼이민자 학력 신장(검정고시)</li> </ul>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만족도(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li> <li>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li> <li>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li> <li>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스포츠 체험 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기능 회복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li> <li>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li> <li>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다문화가족 축제)</li> <li>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교육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특화사업</li> <li>취·창업관련 자격증 과정: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사회통합: 연수구/가족관계 개선: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li> </ul>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유학생 참여 인원(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주민 생활 지원</li> <li>외국인주민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인천 명소 탐방, 한국문화 이해도 확대</li> <li>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공모사업</li> </ul>	외국인 생활지원
	외국인주민정착 지원행사(회)	7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이용 연인원(명)	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지원시설 운영</li> <li>외국인종합지원센터 한국어 교실, 상담 데스크, 외국인 대상 체육활동, 전통문화체험 운영</li> </ul>	

자료: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2020년 업무계획

- 우선, 다문화가족과 내 다문화가족팀의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으로 구분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는 가족, 성 평등, 인권에 관한 집합교육과 상담 사업이 포함되며, 특성화 사업에는 방문 교육,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지원 서비스가 있음
  -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풀 DB를 구축하고 다문화 강사로 양성해 파견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이 외에도 취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가 운영사업을 추진함
  -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 및 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치료를 지원함
  - 다문화가족팀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은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됨
- 다음으로, 외국인생활지원팀의 2020년 주요 사업은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분됨
  -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사업에는 외국인주민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인천명소 탐방,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됨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사업에는 한국어 교실 운영, 일상생활 및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과 외국인 대상 체육활동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계획됨
  - 외국인생활지원팀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내·외국인 교류사업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됨
- 즉, 현재 인천시의 가족다문화과의 다문화 관련 사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진작,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외국인 대상 한국 사회·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대상 기초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 문화예술과

- 인천시 문화예술과 내 문화정책팀이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시책 추진 업무를 담당함
  - 문화예술과는 2020년 11월 현재 문화정책팀, 문화진흥팀, 생활문화팀, 중무지원팀, 음악도시팀으로 조직되어 있음
- 이에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2020년 문화예술과의 업무계획에서 문화정책팀의 주요 사업을 살펴봄
- 문화정책팀의 주요 사업은 ‘예술인 복지지원’, ‘예술인·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 ‘문화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구분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2020년 문화정책팀의 사업 중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문화와 관련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사업 현황을 봤을 때 현재로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정책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표 4-6] 2020년 문화예술과 내 문화정책팀의 주요 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		세부사업	담당팀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치		
문화복지 구현	수혜자 수 (명)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li> <li>예술인·예술단체 대상 창작 활동 지원</li> </ul>	문화정책
	이용률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복지지원</li> <li>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준비</li> </ul>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건수 (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li> <li>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장애인 예술인·예술단체)</li> </ul>	
문화 활동 활성화	건수	21	문화가 함께하는 인천애플 운영	
	개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li> <li>개항장 일원 예술인 창작공간 5개소 지원</li> <li>플리마켓 20회 운영</li> </ul>	

자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2020년 업무계획



## 2) 관련 시설

###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20년 현재 인천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용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7281호)의 제12조와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746호)의 제7조2항과 제17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하여 정함

[표 4-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제도

구분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li> <li>•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li> <li>•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li> <li>•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자원사업의 실시</li> <li>•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li> <li>•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홍보</li> <li>•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li> <li>•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일자리의 알선</li> <li>•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li> <li>•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li> <li>•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li> <li>•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li> <li>•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시행, 직업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li> <li>•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li> <li>•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결혼이민자 보호·지원 등</li> </ul>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제17281호);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746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와 군·구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각 군·구는 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을 추진함

[표 4-8]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2020.1.11. 기준)

센터명	개소	주소	위탁기관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중구 경동 229-3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동구 송림동 102-59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미추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	미추홀구 학익동 239-2	인하대학교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연수구 연수동 599-5	주안복지재단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	남동구 논현동 644-1	성산호나눔재단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부평구 십정동 279-20	인천 여자 기독교 청년회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	계양구 계산동 906	사단법인 웰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서구 공촌동 305	인천대학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23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환경조성, 방문 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가족 소통 프로그램, 성 평등·인권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상담으로 구분됨
-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표 4-9]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사업명	내용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운영
통·번역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기관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으로 이용 가능
언어발달지원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으로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을 제공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지원
방문 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모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 프로그램 (소통 up 사랑 up)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믿음을 증진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력과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정체성 함양 교육
성 평등·인권교육 (평등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부부, 가족 간의 성 평등 인식 제고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서비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지식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제공
다문화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 관계 개선 및 가족 갈등 등과 관련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자료: 2020년 인천시 가족다문화과 주요업무계획

## (2)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와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인천국제교류재단이 2007년에 개소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아 왔으나 2016년 인천관광공사 설립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이 해산되면서 센터의 운영 업무는 인천시로 이관되어 현재 가족다문화과에서 관리·운영을 담당함(연합뉴스, 2015)<sup>15)</sup>

- 2020년 6월 현재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총 2명(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2명의 상담자원봉사자가 2교대로 배치되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표 4-10]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제도

구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 외국인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li> <li>•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li> <li>•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li> <li>•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li> <li>•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등</li> </ul>

자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974호);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746호)

-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로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함

[표 4-11]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현황

구분	내용
운영 주체	•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2016년 3월부터)
개소 연도	• 2007년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 증대</li> <li>•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li> </ul>
운영 시간	• 월~금 9시~17시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인천시새마을회 320호)

-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여 각종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함
- 그리고 인천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강좌와 자조 모임 및 동아리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법무부의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한국 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15) 강종구(2015.12.9.). 국제도시 맞아? 인천외국인지원센터 방치, 연합뉴스

- 이 외에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맞춘 운전면허 교실, 도예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및 참여형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4-12]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상담 데스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종합 상담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2교대로 배치하여 5개 언어(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별 맞춤 지원 서비스 제공</li> <li>외국인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대학,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서 등 지역기관에 연계 지원</li> </ul>
한국어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준별(입문, 초급, 중급, TOPIK)로 한국어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12주 과정으로 1년에 3기(2월~4월, 5월~7월, 9~11월)를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함</li> </ul>
자조 모임 및 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 외국인 주민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자조 모임과 동아리 활동 지원</li> </ul>
사회통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의 함양 기회를 제공</li> <li>교육은 5단계 과정으로 0~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5단계는 한국 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li> </ul>
기타 참여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면허 교실, 도예 체험 등 외국인주민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 운영</li> </ul>

자료 : 인천시 홈페이지

### (3) 인천문화재단

- 2004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시민의 문화 향유와 자발적 문화 활동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옴
-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한 다문화·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 2019년의 무지개다리 사업과 2020년 시민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살펴봄
  -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 지원 공모사업임

[표 4-13] 인천문화재단 개요

구분	내용
설립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li> </ul>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자발적 문화 활동 기회 증진</li> </ul>
운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금요일 9~18시</li> </u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항동5가 13)</li> </ul>

자료: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19 인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2019년 인천문화재단은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라는 사업명으로 무지개다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함
- 인천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은 ‘인천 문화다양성 협의회’, ‘문화다양성 수다 토크쇼 비밀로 해주세요’, ‘만국 시장 파라다이스’, ‘하나 되는 행복 레시피’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우선, ‘인천 문화다양성 협의회’는 지역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촉발 및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과 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재단은 다문화, 한 부모, 마을활동가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 30일과 8월 27일에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함. 회의에서는 문화다양성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문화다양성 수다 토크쇼 ‘비밀로 해주세요’는 문화다양성 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사회 속의 왜곡된 시선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공론의 장을 통해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은 10월 18일에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음
  - ‘만국 시장 파라다이스’ 사업은 매월 다양한 문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테마를 선정해 진행되었고,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반려동물, 친환경, 책 등을 주제로 진행됨. 예컨대, ‘친환경’을 주제로 한 만국 시장에서는 공기 정화 식물, 대안 생리대 만들기 체험, 친환경 소재 가방 등을 상품으로 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하나 되는 행복 레시피’는 결혼이주민들과 선주민이 음식과 요리를 매개로 소통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총 8회 진행하였으며,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페루,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결혼이주민이 출신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 외에도 인천문화재단은 ‘하나 되는 행복 레시피’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베트남, 필리핀의 날을 운영하여 각 나라의 전통 및 생활양식, 놀이문화를 선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였음

[표 4-14] 2020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선정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 주체	지원 금액(원)
1	블라인드 낭독 콘서트 <숨들명>	창조예술공간 더울	14,000,000
2	위업(we up) 활동	우리동네 목공방 협동조합	15,000,000
3	인천 등대원정대	사단법인 황해섬 네트워크	18,000,000
4	지역(강화)문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다	협동조합 청풍	17,000,000
5	산곡동 영단 주택	동인천 탐험단	16,000,000
6	오픈 마이 레코드(Open My Record)	시인의 사회	15,000,000
7	생활문화 오픈 클래스 "제1회 인천 생활예술 동아리 박람회"	인천 생활예술 협회	14,000,000
8	시민 낭만 창작 뮤지컬 '소우주 환상곡 시즌5' - [그저 평범한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주식회사 문화 바람	14,000,000
9	우리 동네 낭독극장	공연창작소 지금	14,000,000
10	손끝으로 여는 세상 - 시(詩)로 나뉘요	한미서점	11,000,000
11	시민들이 만드는 굴포천 환경 축제	갈산나빌레	14,000,000
12	이웃 다큐 - 이웃, 누가 누구?	커뮤니티 씨어터 우숨	14,000,000
13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서해문화	14,000,000
합계			190,000,000

자료: 2020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

- 2020년 인천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생활 속 문화, 다양성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시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사업을 추진함(인천문화재단, 2020)
- 시민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2020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의 다양한 생활문화와 지역, 사회적 이슈, 다문화, 소수자,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임
-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관내 문화예술 단체·법인을 선정하였고, 단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총 1.9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됨
- 공모 결과 총 13개 팀이 선정되어 민간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다문화와 관련한 프로젝트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표 4-15] 2019~2020년 인천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

구분		내용
2019	인천 문화다양성 협의회	다문화, 한 부모, 마을활동가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천의 문화다양성 확산 방법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
	문화다양성 수다 토크쇼 '비밀로 해주세요'	인천 문화다양성 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왜곡된 시선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공론의 장을 통해 소통하는 프로그램
	만국 시장 파라다이스	지역의 젊은 예술가와 기획자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다양성을 담고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플리마켓 진행(반려동물, 친환경, 책을 주제로 진행)
	하나 되는 행복 레시피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이 음식과 요리를 매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2020	시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생활 속 문화, 다양성의 확산'	시민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역, 사회적 이슈, 다문화, 소수자,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활동

자료: 2019 무지개다리 자료집, 2020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신청안내

#### (4) 기초문화재단

-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문화재단에는 부평구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이 있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2007년, 서구문화재단은 2018년, 연수문화재단은 2019년에 설립됨
- 본 절에서는 각 기초문화재단이 추진한 다문화·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의 내용을 살펴봄

[표 4-16] 기초문화재단 개요

구분	부평구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설립연도	2007	2018	2019
운영목적	문화예술진흥 도모 및 부평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구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 참여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진흥	연수구의 독창적인 문화 가치 창조 및 지역 문화 진흥
운영시간	월~금요일 9시~18시	월~금요일 9시~18시	월~금요일 9시~18시
위치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내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연수구청 별관 3층

자료: 각 기초문화재단 홈페이지

- 우선,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지개다리 공모사업에서 '평등한 시리즈'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되어 4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함

- ‘평등한 시리즈’는 부평(富平)이라는 지역명에 담겨있는 ‘평등’의 의미에 주목하여 지역 내 다양성을 일깨우고, 차이를 이해하며, 차별에 맞서는 프로젝트로 구성됨
- 이 프로젝트는 일상 속 평등의 의미를 확산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목적으로 총 7개의 시리즈(평등한 젠더, 평등한 연구, 평등한 네트워크, 평등한 네트워크 워크숍, 평등한 클럽, 평등한 마켓, 평등한 우리)를 기획함
  - ‘평등한 젠더’는 총 6차례에 걸쳐 부평 여성들이 속한 현장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28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평등한 연구’는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단행본을 발간함
  - ‘평등한 네트워크’는 부평지역 문화다양성 실행 단체들의 정보 공유와 관계 형성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며, ‘평등한 네트워크 워크숍’은 평등한 시리즈 실행 단체들의 네트워크와 강의, 릴레이 토크 등을 진행하였음
  - ‘평등한 클럽’은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소모임 지원사업으로 총 7개 모임을 통해 260명이 참여하였고, ‘평등한 마켓’은 독립출판가, 수공예 장인 등이 여성 및 이주민 관련 활동과 독립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 프로젝트임
  - ‘평등한 우리’는 미투 및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인터뷰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프로젝트로, 2018년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주로 젠더 이슈를 주제로 진행됨
- 서구문화재단은 2020년에 무지개다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4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사업에는 문화다양성 주간 참여,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문화다양성 협의체 및 워킹 그룹 모임 운영,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 운영, 문화다양성 북 토크 콘서트 진행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오래 보아야 예쁘다, 조금은 다른 ‘천마산 아기장수 이야기’, N개의 골목 문화 놀이터, 네트워크 파티 사업 등이 있음
  - 우선, 문화다양성 주간에는 ‘서구에 뜬 무지개’를 주제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해와 개념 및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서구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5월과 6월에 문화다양성 개념 및 가치교육을 2회 시행함



-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통합 향상에 관한 논의를 발전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며, 문화다양성 협의체 및 워킹 그룹 모임은 서구의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와 사업 수행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내년도 문화다양성 사업을 기획하고자 추진됨
- 문화다양성 북 토크 콘서트는 책 작가와 함께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래 보아야 예쁘다’ 사업은 음식 및 영상을 매개로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됨
- 또한, 서구문화재단은 ‘천마산 아기 장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창작연극을 지원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석남서초등학교 인근 골목 등에서 ‘N개의 골목 문화 놀이터’ 사업을 진행함
- 이어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내년도 문화다양성 사업추진 방향성을 논의하는 ‘네트워크 파티’ 운영을 계획함
- 2019년에 설립된 연수문화재단은 올해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과 ‘무지개다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연수문화재단, 2020)
-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은 ‘연수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특강’과 ‘함박웃음 문화학교 준비 회의’<sup>16)</sup>, ‘문화다양성 아카이빙’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문화다양성 특강은 재단 내부 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지역의 예술가·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안내하고 관련한 논의를 발전해 보고자 기획됨
  - 함박웃음 문화학교 준비 회의는 2021년에 진행이 예정된 함박웃음 문화학교(가칭) 운영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모임으로 함박마을 내 공공·민간기관 담당자, 함박마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됨
  - 문화다양성 아카이빙은 연수구 내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딜러 업무를 하는 아랍,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현황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지식 공유 협동조합을 통해 수행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16) 2020년 7월 기준 연수구 함박마을에 약 3,043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음. 이는 연수구 내 고려인의 58.6%를 차지하는 수치이자 인천 전체 고려인의 약 43.0%에 해당하는 비율임(양수진, 2020)

[표 4-17] 기초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구분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사업
부평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지개다리 ‘평등한 시리즈’(2018): 부평(富平) 지역명에 담겨있는 ‘평등’의 의미에 주목하여 지역 내 다양성을 일깨우고, 차이를 이해하며, 차별에 맞서는 단계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한 젠더: 부평의 여성들이 속한 현장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는 공유의 장</li> <li>- 평등한 연구: 부평지역 여성공동체 사례조사를 통한 현황과 실태 파악</li> <li>- 평등한 네트워크: 부평지역 문화다양성 실행 단체들의 정보 공유 및 관계 형성</li> <li>- 평등한 네트워크 워크숍: 평등한 시리즈 실행 단체들의 네트워크 사업</li> <li>- 평등한 클럽: 문화다양성 확대 및 지지대 마련을 위한 소모임 지원</li> <li>- 평등한마켓: 독립출판가, 수공예 장인 등이 여성과 이주민 관련 주체의 활동과 독립문화를 알리는 장 마련</li> <li>- 평등한 우리: 미투 및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인터뷰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li> </ul> </li> </ul>
서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지개다리(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주간: 문화다양성 이해와 개념 및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li> <li>-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 및 인식개선 교육</li> <li>- 라운드 테이블: 문화다양성 가치 관련 의견 발굴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 논의</li> <li>- 문화다양성 협의체 및 워킹 그룹 모임: 문화다양성 협의체 및 워킹 그룹 네트워크 형성</li> <li>- 문화다양성 북 토크 콘서트: 작가와의 북토크 콘서트를 통해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인식 제고</li> <li>- 오래 보아야 예쁘다: 음식 및 영상을 매개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li> <li>- 조금은 다른 ‘천마산 아기 장수 이야기’: ‘천마산 아기 장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창작연극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공유</li> <li>- N개의 골목 문화 놀이터: 놀이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공유 및 상호이해 증진</li> <li>- 네트워크 파티: 프로그램별 성과공유 및 다음연도 문화다양성 사업 논의</li> </ul> </li> </ul>
연수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특강: 재단 내부 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함께 다양한 갈래 안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특강</li> <li>- 함박웃음문화학교 준비 회의: 2021년 진행 예정인 함박웃음문화학교(가칭)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모임</li> <li>- 문화다양성 아카이빙: 연수구 내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 딜러 업무를 하는 아랍,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시행해 자료집을 제작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발판 마련</li> </ul> </li> <li>• 무지개다리 ‘테이블; 결’(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형 리서치 프로그램 ‘결을 내어주는 테이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자유로운 상상과 탐색을 위한 부스를 제작하여 주민들과 문화다양성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공간 운영</li> <li>- 주민참여 리서치 프로그램 ‘사전; 결’: 주민들이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문화다양성의 언어를 주민들의 생활언어로 번역해보는 프로그램</li> </ul> </li> </ul>

자료: 부평문화재단(2018); 부평문화재단(2019); 서구문화재단(2020); 연수문화재단(2020)

- 연수문화재단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테이블; 결’이라는 이름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함
-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공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인생 나눔 교실, ㉡무지개다리, ㉢문화이모작, ㉣지역 문화 콘텐츠 특성화, ㉤지역 문화인력 배치, ㉥신중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통합 지원사업임

- 연수문화재단의 ‘테이블; 결’은 세부사업 ‘결을 내어주는 테이블’과 ‘사전; 결’으로 구분됨
- 놀이형 리서치 프로그램인 ‘결을 내어주는 테이블’은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관련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게임 톨이 고안된 부스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두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됨
- 주민참여 리서치 프로그램인 ‘사전; 결’은 송도2동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관찰·기록 하며 주민들의 생활언어로 동네의 문화다양성을 표현해 보는 학습공동체 모임을 지원함

## (5) 인천영상위원회

- 인천영상위원회는 2006년 인천문화재단 내에 조직된 후 영상산업과 문화 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2013년 독립법인으로 출범(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 영상위원회는 인천시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내·외 영화·영상물의 촬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영상물 기획·개발 지원, 지역 영상인 육성, 영상문화 활성화, 인천 영상 아카이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함
-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업에는 이민자·난민 등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sup>17)</sup>를 주제로 한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다양성 영화 공공상영관인 ‘별별 씨네마’가 있음
-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국내·외 60여 편의 영화상영 및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별별 씨네마는 매월 테마에 맞춰 약 4편의 다양성 영화를 선정해 상영함

[표 4-18] 인천영상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설립 연도	• 2006년 조직 / 2013년 독립 법인으로 출범
운영목적	• 국내외 영화·영상물의 적극적인 촬영 유치 및 지원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인천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운영 시간	• 월~금요일 9~18시
위치	•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17

자료: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17)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로, 이산(離散) 또는 파종(播種)을 의미한다.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두피디아 백과사전)

- 인천영상위원회는 2013년부터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 인식하는 변화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2020년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스퀘어원, CGV인천연수에서 진행되었음
  -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영화상영 외에도 디아스포라 영화제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관객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서신교환 프로젝트’, 디아스포라 관련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디아라이브러리’, 결혼 이주 가정, 화교, 유학생 등 인천지역 디아스포라 이주민과 선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인 ‘이주민 미디어 교육’, 내·외국인의 갈등 문제를 고민하고 관련 영화를 통해 양질의 비평 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 영화비평 워크숍’을 부대 행사로 진행함
- 다양성 영화 공공상영관 ‘별별 씨네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성 영화를 인천의 문화시설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임
  - 상영장소는 인천평생학습관과 인천 내 9개 도서관(연수, 계양, 화도진, 석남, 부개, 작전, 검단, 용비, 신석)임

[표 4-19] 2020년 별별 씨네마 상영작

일정	상영작
6월	• 밀청
7월	• 열대야, 마음의 편지
8월	• 우리가 택한 이 별, 순환소수, 아역배우 박웅비, 능력소녀, 안 죽을지도 몰라, 혐오돌기
9월	• 모두의 영화, 나는 네가 될 수 없다, 기쁜 우리 젊은 밤, 사이, 아아아, 파슬리 소녀
10월	• 해피 호구 데이, 양귀비 랩소디, 나의 고백

자료: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 2019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4개 영화를 상영해 총 33개의 작품이 상영되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6월부터 온라인 상영을 시작했고 10월 21일 기준 열네 번째 영화까지 상영됨

[표 4-20] 인천영상위원회 문화다양성 사업

구분	내용
디아스포라 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부터 이민자, 난민 등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영화제를 개최하여 2020년 8회째 운영</li> <li>- 부대행사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 내·외국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의식을 청소년과 함께 나누고 관련 영화를 통해 비평 교육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진행</li> </ul>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 '별별 씨네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성 영화를 인천의 문화시설에서 상영</li> </ul>

자료: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 5. 진단

### ❖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선제적 사업 추진계획 마련 필요

- 2018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외국인주민은 다섯 번째로 많고,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여섯 번째로 높으며 다문화가구 수는 세 번째로 많음
- 이는 인천시가 일상생활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발생하는 접촉 빈도가 낮지 않은 지역사회임을 의미함
- 그러나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은 50.3점으로 전국 평균인 53.0점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시(54.8점)와 경기도(55.8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도 큰 격차를 보임
- 문제는 인천시에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부문에서 다문화수용성 향상 등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임
- 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사항이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따르는 지역의 사업은 인천시 가족다문화과를 통해 관리·운영되며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 법정계획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나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았음
- 이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재단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원해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이 끊기거나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상당수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인천시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교류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계획을 마련하여 인천시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 있음

## ❖ 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산 필요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할 필요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인천시민 중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하였는데, 통계분석 결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낮은 대상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인천시의 '2019 사회조사'에서도 인천시민의 이주민에 대한 존중감은 낮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이주민'을 구분하는 경계를 낮추고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정책의 역할이 요구됨
- 따라서 문화예술인·단체와 함께 다문화를 포함한 문화다양성 영역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대상별로 개발·운영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감과 이해를 키울 기회를 제공해야 함

## ❖ 문화다양성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설치 필요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사업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외국인 대상 상담 및 한국어 교실 운영사업과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됨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영역을 포함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할 지역의 전담기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의 적극적 확대와 지역의 다문화 현황 특성에 맞춘 사업의 기획은 미진하였음
- 즉,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다문화 사업과 차별화된 문화다양성 사업을 본격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방점을 둔 기관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설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 다문화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임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 1. 도출 과정

- 본 연구는 인천시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문화다양성·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다문화와 관련한 문화정책 동향과 사업 추진 사례’,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 간 상호존중 감 형성의 중요성을 증대함
-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형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문화 수용성 및 감수성의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향후에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사회적 거리감, 낮은 인권 의식과 같은 다문화사회의 주요 사회적 쟁점 해소에도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은 부수적 역할 수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사업과 성과를 검토해 기능을 강화하고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그림 5-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도출 과정

문화다양성·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과정	주요 시사점
<b>[문화고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li> <li>•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계 분석</li> <li>• 다문화사회의 주요 쟁점 검토</li> <li>• 다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공존과 상호존중감의 중요성 증대</li> <li>• 현재의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 부문이 담당하는 역할을 검토하고, 다문화감수성 향상 등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의 역할 강조 필요</li> <li>• 다문화 정책에 문화다양성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역할 확대 필요</li> <li>• 주요 사회적 이슈(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사회적 거리감)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추진 필요</li> <li>• 외국인의 인권 존중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li> </ul>



다문화 관련 문화정책 및 사업 동향	
과정	주요 시사점
<b>[주요 정책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동향 검토</li> </ul> <b>[사례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정책 강화 기반 확보 사례 검토</li> <li>• 외국인 인권 향상,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 개선을 위한 문화사업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정책은 부수적 역할에 머물러 있음</li> <li>•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가 담당할 역할을 발굴, 정립해야 함</li> <li>•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존중,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li> <li>•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문화사업 기획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li> </ul>



인천시 다문화 관련 현황	
과정	주요 시사점
<b>[외국인주민·다문화가구 현황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활용</li> </ul> <b>[인천시민 다문화수용성 실태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활용</li> </ul> <b>[인천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사회조사' 활용</li> </ul> <b>[인천시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제도와 담당 부서</li> <li>• 관련 사업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감은 상당히 낮고, 사회적 거리는 큰 것으로 나타나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li> <li>• 문화체육관광부의 견고하지 않은 다문화 사업추진 기반은 지역의 문화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천시 문화정책에서 다문화 유관 사업추진은 미진</li> <li>•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 공모사업만이 민간 영역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li> <li>•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와 다양한 소수자의 사회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li> </ul>



분석 결과 종합

자문(2020.11.18.~2020.11.24.)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도출
--------------------------

- 한편, 인천시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상당수 분포해 있으나 인천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감은 상당히 낮고 사회적 거리는 큰 것으로 나타나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견고하지 않은 다문화 사업추진 기반은 지역의 문화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천시 문화정책에서 다문화 유관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만이 문화재단과 영상위원회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천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와 다양한 소수자의 사회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 문화정책의 추진기반과 역할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존중하는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접촉’ 및 ‘상호교류’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 있음
  - 기존의 다문화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하지만, 다양한 문화들의 병렬적 공존에만 관심을 둔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문화다양성에서 강조되는 상호문화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쌍방향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의 ‘교류’와 ‘만남’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정책의 역할이 요구됨

## 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 문화정책의 추진기반과 역할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 ‘다문화 감수성 확산’,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로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정책을 제언함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수립’, ‘인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치’를 제안하였음
-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를 위한 제안사항으로 ‘외국인 인권증진·일상적 차별을 주제로 한 문화사업 기획 지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교류사업 지원’을 제시함
- ‘다문화 감수성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하고,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문화다양성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표 5-1]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시 문화정책의 과제 제언

구분	내용
목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 문화정책의 추진기반과 역할 강화
과제 제언	<b>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b>
	①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②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수립
	③ 인천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치
	<b>2)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b>
	① 외국인 인권증진·일상적 차별 개선을 주제로 한 문화사업 기획 지원
	②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교류사업 지원
	<b>3) 다문화 감수성 확산</b>
	①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②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b>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b>
	① 인천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②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③ 문화다양성 연구 활성화

## 1) 정책 추진 기반구축

### (1)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제정

-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법정계획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중앙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지역의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수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계획에 담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팀이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운영 업무는 맡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2020년 문화예술팀의 주요 업무에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만이 계획됨
  - 반면,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따르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
  -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매년 인천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담아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팀과 외국인생활팀에서 사업 시행을 담당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1월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6곳이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 지자체 중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7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더욱이 인천시에 외국인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다문화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통합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5-2] 중앙과 인천시의 다문화·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식 비교



- 이와 함께 문화 부문에서 다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그러므로 국적, 언어, 인종, 민족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을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 있음
- 그리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인천시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와 외국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균형적으로 운영하여 인천시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을 촉진할 것을 제안함

## (2)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수립

- 인천에 이미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다문화 도시로의 이행 속도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시행될 필요 있음
  -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이에 입각한 문화적 성숙을 이루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부터 4년마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인천시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중앙과 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동해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그리고 인천시 문화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검토·평가하고, 매년 정책사업을 보완해 나갈 필요 있음

## (3) 인천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치

-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인천시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로 제시한 사업들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지원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 조례에서 제시하는 지원범위에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및 적응 교육 제공’,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 교육·훈련’, ‘다문

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됨

- 한편, 문화다양성에서 일컫는 문화적 관용은 국적,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다양성 사업의 범주는 사회구성원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를 설치할 필요 있음
-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립 시 센터 관리와 운영 지원은 인천시 문화예술과가 맡고 인천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됨
  - 현재 인천시의 군·구는 전문기관과 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인천시 가족다문화과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어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의 운영도 인천시 직영과 위탁운영 방식 모두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기획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광역 단위에서만뿐만 아니라 군·구에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광역 단위인 인천문화재단이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더욱이 문화재단이 다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해 기획된 문화사업과 다문화 이해 제고 프로그램을 더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관·단체(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영상위원회와 등)와의 협력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처럼 인천의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는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의 기초문화재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다문화 프로그램, 인적·물적·공간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일반적인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오히려 외국인과 내국인을 경계 짓고, 외국인을 지역사회로부터 심리적·문화적으로 계도화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교류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 모색을 가능하게 할 공간적 기반으로 '소통'에 방점을 둔 인천시 문화다양성 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 2)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

### (1) 외국인 인권증진·일상적 차별 개선을 위한 문화사업 기획 지원

- 외국인의 인권증진과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 개선을 주제로 한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예컨대, 사례로 살펴본 김해문화재단의 '말모이'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혐오단어와 차별단어를 발굴해 대체 및 순화 단어를 제시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우수사례로 선정함
  - 한양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와 극단 '해'가 공동 제작한 연극인 '찌로와 철호'도 관객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낮은 인권 의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됨. 비영리 예술단체인 AMC Factory가 이주민들의 인권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문화 부문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됐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확장을 위한 노력도 있었으나 아직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서도 문화정책은 부수적 역할 수행에 머무르면서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거리감, 배타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축적해 오기 어려웠음
-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하는 차별 경험은 매일의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민예슬·김창대, 2018)

-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도 국적, 민족, 인종이 달라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거나 공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작은 경험에서도 인종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함(한겨레, 2020)<sup>18)</sup>
- 이러한 연구는 실제 차별 경험이 아니라 차별을 경험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 차별적인 사회환경은 사회적 소수자의 일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을 설명함
-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유명기, 2002)은 대계가 비폭력적이지만 다수 집단이 당연시하는 문화적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당사자도 그것이 차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발전에서 일상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함
-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나 정착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편견과 무의식은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타인을 차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적 행동과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기획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교류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이웃이 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나, 인천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8) 정환봉(2020.3.11.). 절대 차별한 적 없다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차별 행동.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2048.html>(검색: 2020.11.18.)

- 이웃 간 교류의 약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친밀한 이웃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두려움은 혐오의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내·외국인 간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통합적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 더욱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역사회의 문화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한국의 교육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교류 지원사업이 인천 전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참고할 만한 사례로, 지난 2019년 서울시 강북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것을 돕고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함
  - 경기도 안성시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을 시행하였고, 2020년 경기도 구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여성과 비다문화가정 여성이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배움 교실을 운영함
  -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교실, 문화예술 배움 동아리, 연극·연주 모임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3) 다문화 감수성 확산

#### (1)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인천시가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해 프로그램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다각화할 것을 제안함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예술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콘텐츠를 제작·활용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대표되는 문화다양성 사업은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 제고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어려움. 이에 지역 차원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나아가 프로그램 적용 우선 대상으로 교원과 학생을 상정하여 대상에 맞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수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수 수료 인원 중 인천지역 교원은 2% 이하로 참여가 저조함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에서 다루는 문화다양성의 범주는 인종과 국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젠더, 장애, 연령 등의 주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영역은 좁을 수밖에 없음
- 또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2016)가 인종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획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따라서 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기획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전달되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은 다문화 배경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2)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 인천시 외국인주민은 2018년 대비 2019년 12.6% 증가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인천시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인천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타 시·도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인천시의 총인구는 0.5%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주민은 115,720명에서 130,292명으로 12.6% 증가함. 다문화가구도 2018년 65,112가구에서 2019년 70,222로 조사되어 5,000세대 넘게 증가하였음
-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거리감과 차별은 지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인천시민 문화대학 하늬바람’에 문화다양성 강좌를 구성하는 것과 다문화 교육 전공이 있는 인하대학교와 협력하여 평생교육원을 통해 시민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다문화와 관련한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다문화 이해 교육의 세분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이 부족한 집단, 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예컨대,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큰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남

#### 4)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 (1) 인천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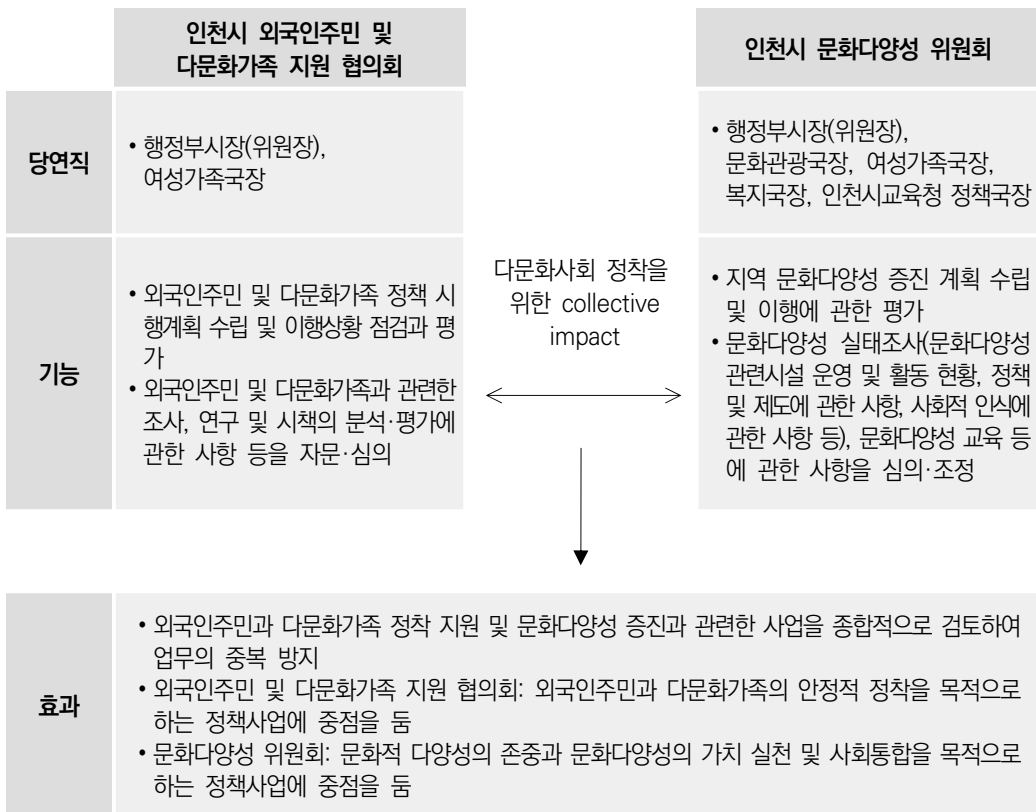
- 인천시 다문화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인천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 부문에서 다문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운영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 행태를 개선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평가로 할 것을 제안함
- 인천시 문화다양성 위원회는 인천시 문화관광국장, 여성가족국장, 복지국장, 인천시 교육청 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업무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재 인천시교육청 정책국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문화 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조직된 문화다양성 위원회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와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회의’를 통해 중복 업무를 확인하고 인천시 외국인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함
-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746호)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정례적인 회의 운영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부서 간 사업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인천시의 여성가족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인천시교육청 정책국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회의’를 운영하여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중복 사업을 어느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함



- 여기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란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주체가 특정 사안의 해결을 넘어 특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적·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방식임(김정태 외, 2017)
- 예컨대,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천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외국인협의회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그림 5-3] 문화다양성 위원회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정례회의 제안



자료 :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당연직 구성과 기능 참고함

## (2)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문화다양성 협의회’를, 서구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과 ‘문화다양성 협의체 및 워킹 그룹’을, 연수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학습공동체’를 운영·지원한 바 있음
- 이에 인천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와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협의회와 워킹 그룹, 지역의 문화다양성 유관기관과 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의제를 발굴·논의하여 효과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성 소수자, 독립·대안 문화예술의 문화적 표현 실태를 점검하고 각 대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 (3) 문화다양성 연구 활성화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각적 연구 수행을 통해 인천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질적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무지개다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향상과 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될 필요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정책이 포괄하는 영역이 상당히 넓음
- 따라서 영역별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소수자 집단·계층별 지원정책 개발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하여 범 영역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결론

- 본 연구는 인천시에 외국인주민이 지속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인천시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기획됨
- 이를 위해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및 사례를 분석하였음
- 그리고 인천시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의 현황 및 다문화 관련 정책 여건을 살펴보고, 인천시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실태를 분석함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시행하여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시 문화정책의 과제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구축’,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문화사업 확대’, ‘다문화 감수성 확산’,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함
- 다문화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인종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유하는 언어와 문화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사회적 현상보다도 개인의 삶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인구분과의 『2019 국제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약 5%가 국제이주를 하였고, 이는 2017년의 국제이주 비율인 3.4%보다 약 1.6% 증가한 수치임
-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국제이주 및 인구이동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며, 나아가 더는 단일민족으로만 구성된 국가 혹은 지역을 찾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함
- 따라서 과거의 단일민족주의를 중시하는 민족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존중하고 포용적 태도와 자세를 지니는 것이 현 사회의 당면 과제임
- 더욱이 우리 사회는 상당히 빠르게 다문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문화적 규범과 태도, 가치와 관련한 변화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많은 문화적 갈등과 충돌에 직면함

-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증가한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 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촉진할 문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해 짐
- 즉, 이주민들의 공간적 분리, 문화적 정체성의 고착화, 지역적 계토화, 그리고 사회적 주변화를 방지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차별 없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됨
-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의 문화정책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지역 문화정책의 역할수행도 미흡하였음
-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나 중앙으로부터 문화다양성 사업이 내려오기 전까지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움
- 특히, 인천시의 외국인주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의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은 충분히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2017년 인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최영화 외, 2017)가 수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단함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가 다문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인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기반과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이와 같은 노력은 인천시가 다른 인종과 국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촉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주제어 ►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문화다양성,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 참고문헌

### ■ 단행본·연구보고서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6).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김이선 외(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정순(2012).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해문화재단(2019).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활동자료집.
- 김해문화재단(2019). 2019 무지개다리 사업 결과자료집.
- 류정아(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류정아(201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배은주(2018).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인천연구원
- 양수진(2020).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 조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 유영심(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강원연구원.
- 인천문화재단(2019). 2019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자료집.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영화 외(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19-20년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결과자료집.

### ■ 학술지·학위논문

- 고기숙·정미경(2012).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0), 254-279.
- 김광재(2019). 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법조, 68(4), 42-76.
- 김정태·이예지·이은진·김선미(2017). 난해한(complex)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으로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개념 및 국내외 사례. CRC issue paper, 1, 27-45.
- 김태원(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3.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민예슬·김창대(2018).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이 매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부귀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9(6), 113-127.
- 민지선·김두섭(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박효민·김석호·이상림(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150-138.
- 변보기(201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시민권과 사회통합.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 459-467.
- 심규선·이민하·이윤석(2018).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발전 방안 연구 무지개다리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7-47
- 양재영·최명섭·고진수(2017).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과 지역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택연구, 25(4), 159-180.
- 유명기(2002).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2-35.
- 이다은·이윤아·고혜빈(2016).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도농 간 외국인 접촉 맥락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88-604
- 이명진·최유정·최선헌(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정금·이병환(2020).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문화교류연구, 9(2), 1-24.
- 이정우(201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다문화사회 관련 단위내용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30, 37-63.
- 조민식·송시형(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1), 53-72.
- 최대희(2018).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53-67.
- 허찬행·심영섭(2015). TV매체가 재현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현실: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1), 325-363.
-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909-928.

## **법률·조례**

-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6725호). 2020.8.7. [전부개정]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6195호). 2019. 6. 18. [일부개정]
-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1449호). 2019.10.4.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5111호). 2020.7.24.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15204호). 2017.12.12. [일부개정]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3318호). 2019.12.23. [일부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2691호). 2014. 5. 28. [제정]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5552호). 2017.3.22.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6495호). 2017.5.18.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82호). 2018.1.5. [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94호). 2017.11.16.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1432호). 2019.12.16. [제정]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2234호). 2019.12.19. [제정]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1872호). 2019.6.2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746호). 2016.12.30.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66호). 2020.5.18. [제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974호). 2017.10.31. [일부개정]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4121호). 2016.12.1. [제정]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8.7/page-1.html#docCont>(검색: 2020.11.7.)

## **행정자료**

김해문화재단(2020). 말모이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2013). 이주민-새터민-지역주민의 마음과 마음을 문화로 잇는 ‘무지개다리’ -문체부, 12개 지역서 다양한 문화의 융성·소통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 리플렛.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 보도자료.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부평구문화재단(2018). 무지개다리 사업계획서.

부평구문화재단(2019). 2018 부평구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서구문화재단(2020). 2020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북.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연수문화재단(2020). 2020 연수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인천시(2020). 2020 인천시 가족다문화과 주요업무계획.

인천시(2020). 2020 인천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

인천문화재단(2020). 2019 인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인천문화재단(2020). 2020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안내.

인천문화재단(2020). 2020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5년도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2016년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추진계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20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심의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19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교육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2019.1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 신문기사

강승훈(2019.9.26.). 인천 외국인주민 10만명 시대... 체계적 지원 '인천시 이민청' 설치해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5510240>(검색일: 2020년 7월 2일).

강종구(2015.12.9.). “국제도시 맞아?”... 인천외국인지원센터 ‘방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09074100065>(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박기현(2016.3.2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 삶의 질? ‘최악’...11개 국가 중 꼴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6/03/208805/>(검색일: 2020년 7월 2일).

서승완(2014.10.16.). [연극] “찌로와 칠호”,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얘기하다. 서울시정일보. <http://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6>(검색일: 2020년 11월 12일).

신예은(2018.10.19.). ‘2018년 나나 인권페스티벌’ 개최. 영등포신문.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27700>(검색일: 2020년 11월 11일).

윤정현(2014.10.15.). 한양대,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위한 연극 ‘찌로와칠호’ 공연.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803439.html>(검색일: 2020년 11월 10일).

이명용(2020.2.27.). 김해문화재단 ‘말모이’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 대상.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0369>(검색일: 2020년 11월 11일).



이혜리(2018.12.5.). 유엔 “한국 인종차별 심각…국가적 위기될 수도” 우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051450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051450001)(검색일: 2020년 2월 14일).

인교준(2014.10.18.).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인권 다룬 ‘찌로와 칠호’ 상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41017123100372>(검색일: 2020년 11월 12일).

정환봉(2020.3.11.). 절대 차별한 적 없다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차별 행동.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2048.html>(검색일: 2020년 11월 18일).

##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김해문화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inbow\\_gh/222086778859](https://blog.naver.com/rainbow_gh/222086778859)(검색일: 2020년 11월 10일).

두피디아 백과사전. “디아스포라” 의미.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디아스포라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diaff.org/sub/index.php>(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cda.or.kr/main.do>(검색일: 2020년 11월 4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index.do>(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pcf.or.kr/>(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연수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ysfac.or.kr/user/index.php>(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index>(검색일: 2020년 11월 23일).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ifac.or.kr/>(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iscf.kr/new/html/index/>(검색일: 2020년 10월 12일).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ifc.or.kr/>(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우리말샘. “다문화사회” 의미.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41757&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41757&viewType=confirm)(검색일: 2020년 2월 12일).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81035>(검색일: 2020년 11월 12일).

AMC Factory 홈페이지. <http://www.amcfactory.org/>(검색일: 2020년 11월 11일).

AMC Factory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amcfactory/>(검색일: 2020년 11월 11일).



## 부록





## 부록 1

###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

-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는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개 차원과 이를 따르는 8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됨(김이선 외, 2019)
  - 하위요소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 시민 행동 의지’임
- 이러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다음 <표 부록-1>에 제시한 문항을 활용해 측정되며, 조사 결과는 0~100점 구간의 값으로 환산해 발표됨
  - 환산할 때 각 문항의 값이 클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부호화한 문항에는 별도 표시함

[표 부록-1]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와 역부호화 문항

다문화수용성 진단 문항			응답 범주						역부호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양성	문화 개방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민 정체성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문화수용성 진단 문항			응답 범주						역부호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고정 관념 및 차별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 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 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문화수용성 진단 문항			응답 범주						역부호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부· 회피 정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 한 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하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은 꺼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상호 교류 행동 의지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 동포)이 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까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 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 이트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보편성	이중적 평가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 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세계 시민 행동 의지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 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자료: 김이선 외(2019), 53쪽; 2018 다문화 관련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여성가족부)

## 부록 2

###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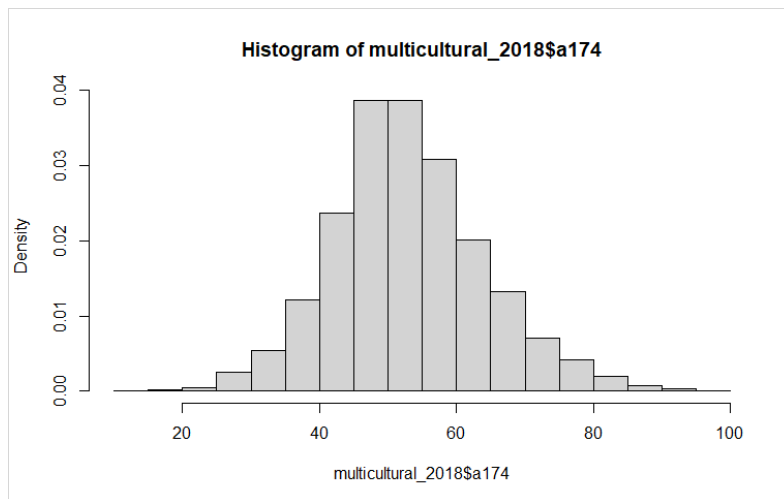
○ 제4장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함

- 통계 분석 프로그램 R을 활용해 분석

[표 부록-2]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다문화수용성	3,974	52.9	11.1	12.7	100

[그림 부록-4] 종속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표 부록-3] 설명변수 중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	3,974	44.6	14.0	19	74
학력	3,974	2.7	1.0	1	5
월평균 가구소득	3,974	4.4	1.5	1	8

주: 학력 변수의 값은 '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전문대학교 졸업, 4=4년제 대학교 졸업, 5=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코딩함.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의 값은 '1=100만 원 미만, 2=100~200만 원 미만, 3=200~3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5=500만 원 미만, 6=600만 원 미만, 7=700만 원 미만, 8=700만 원 이상'으로 코딩함



[표 부록-4] 설명변수 중 범주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범주	빈도	비율
계		3,974	100.0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경험없음	3,799	95.6
	경험있음	175	4.4
성별	남성	2,019	50.8
	여성	1,955	49.2
지역 규모	대도시	1,693	42.6
	중소도시	1,798	45.2
	읍/면	483	12.2
혼인상태	미혼	1,015	25.5
	배우자 있음	2,849	71.7
	기타(이혼/사별)	110	2.8



2020년도 기획연구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

발 행 인 이용식

발 행 일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디자인(주)

I S B N 978-89-5678-925-5 9360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

© 인천연구원 2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